

Korean News · Monthly Bulletin of Korean Association

한인뉴스

8 2016

VOL. 242

haninnewsinni@gmail.com



재인도네시아한인회
www.innekorean.or.id

UNLIMIT

— YOUR STYLE —

WITH PREMIUM METAL & GLASS BODY



SAMSUNG **Galaxy A**

UNLIMIT YOURSELF



Premium Metal & Glass Body - Full Metal Body & 2.5D Glass Design

Advanced Camera - Camera 13MP with LED Flash



스케일이 다른 편안함을 경험하세요

완벽한 휴식, 비즈니스와 품격이 공존하는 하늘 위 너만의 공간-
180도 완전 평면 침대형 좌석으로 내 집같은 편안함은 물론, 40여편이 넘는 영화,
다양한 프로그램과 음악CD를 제공하는 최첨단 개인형 오디오 비디오 시스템으로
또 다른 여행의 즐거움을 드립니다. 대한항공과 함께 최상의 편안함을 느껴보세요.

출발	도착	편명	출발시간	도착시간	요일	기종
자카르타	서울	KE628	2205	0705 ^{*)}	매일	77W
서울	자카르타	KE627	1520	2010	매일	77W
자카르타	서울	KE626	0815	1735	월,목,일	330-200
서울	자카르타	KE625	1850	2355	수,토,일	330-200

* 대한항공 발라-서울 노선 매일 운항

예약 및 기타 문의는 아래 대한항공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자카르타 지점 : 62-21-521-2180

www.koreanair.com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LOTTE SHOPPING AVENUE
New Shopping Paradigm

1945 - 2016
71TH
Parade
MERAH PUTIH
INDONESIA



사은 행사

8월1일 ~ 14일 (15일간)



+



UP TO **IDR 250,000**

200/500/700만루피아 이상 구매시

IDR 100,000

8월 17일 (단 하루) 두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규 오픈

REDSUN 

떡볶이 김밥 등 한국 음식 전문점 (3F)

GOLF CLUB
Swing Your Sense

인도네시아 최초 스크린골프 (5F)

스페셜 바자

UP TO
80%

캐주얼 데님 패션 바자

(8월1일 ~ 9월4일) | GF

LEE, 랭글러, 컬러박스, 등

홈 리빙 페어

(8월1일 ~ 9월4일) | GF

킹코일, 시몬스, 스프링에어, 젠쿱, 등

Shoes & Bags 패션 바자

(8월1일 ~ 14일) | GF

브룩스브라더스, 크럼플러, 클락스, 엘, 등

이벤트



어린이들 위한 새로운 즐거움: 벤츠, 마세라티, 페라리 등 미니슈퍼카를 직접 운전해 볼 수 있습니다

LOTTIE CAR

AVAILABLE AT 3F!

The illustration shows a colorful sign for 'LOTTIE CAR' with a checkered racing line leading to a red and a yellow mini car on a road. The background features a city skyline and green hills.

NISSI BINTARO CAMPUS



The Nissi Group



PT. Indodev Niaga Internet



PT. Miiin Kosmetika Indonesia



PT. GARUDA TWIN JAYA

PT. Bangun Properti Jaya



PT. Henkel Footwear and Specialty Adhesives



PT. Dongsung Jakarta

YK Energi

member of the Nissi Group



百年顧客



hotelfacilities



Borobudur Grand Ballroom



Rama Ballroom I



Shinta Ballroom II



Meeting Room I - V



Fitness Club



Driving Range



Garden Brasserie



Bunker Cafe



Coffee Shop



Business Center



Pool Bar



PUB



Swimming Pool



Restaurant



Sauna & Spa



Money Changer

Java Palace Hotel

Jl. Niaga Utara Kav. 1-2
Jababeka II

Cikarang - Jawa Barat
17530 Indonesia

reservation@palacejava.com

Telp: (62-21) 29281111

Fax: (62-21) 29287300

✉ : info@palace.co.id

Benefit

혜택

고주몽을 포함한 자바팔레스호텔내식음료할인

- 15% 할인주류포함

자바팔레스호텔스파

- 마사지 20% 할인

자바팔레스호텔골프연습장

- 일반가격에서 30% 할인

자바팔레스호텔헬스장, 사우나, 스파시설

- 1년간무료이용

자바팔레스호텔객실

- 무료숙박권 3매 (주말, Superior Room, 조식 2인포함)

- 숙박 50%할인권 2매 (주말, All Room type)

- 숙박 20%할인권 6매 (주중포함, All Room type)

Seruni Coffee Shop

- 생일당일무료생일케익제공

(사전예약필요)

Annual Fee
IDR. 4,500,000 nett

JOIN NOW

0001

privilege

Richard Chu Member Since 8/15 Valid 8/16

발행처 : 재인도네시아한인회
발행인 : 양영연
편집인 : 강희중
논설위원 : 김문환
편집장 : 홍석영
편집위원 : 신돈철, 최인실, 황미리, 황윤홍
취재기자 : 전민규
전 화 : (021) 521-2515, 527-2054
팩 스 : (021) 526-8444
주 소 :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이메일 : haninnewsinni@gmail.com
웹사이트 (<http://www.innekorean.or.id>)
에서 한인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인뉴스후원사로 초대합니다

1996년 7월 15일 창간된 한인뉴스는 한인사회의 소식과 정보통으로 한 호의 결호도 없이 발행되어 왔습니다. 2012년 세계한인회보콘테스트 대상 수상을 계기로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확보하여 한인사회의 중추적인 정론지로서의 위상을 갖추려합니다. 저희와 동참할 후원사를 초대하오니, 한인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후원문의 : 한인뉴스 편집부

전 화 : 021-521-2515

한인뉴스발행인 양영연 배상

한인뉴스편집장으로서
매월 유용하고 좋은 내용을 보기 좋게 책으로 담아내야 한다는 책임을 느낍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여러 사정을 고려하다보면
열정은 식은채 고야말로 넘비반침으로만 쓰일지도 모른다는.

한인뉴스가 창간 20 주년을 맞아
이것저것 새롭게 단장해 보았습니다.

잡지는 배우기 위해 읽는 책이라기 보다는 타인과 소통하고 공감하기 위해 읽는 것이기에
느리게 해야하는 목포가 있습니다.

독자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그 첫걸음이 되기에
새로운 한인뉴스의 후원자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haninnewsinni@gmail.com

0818711246

편집장 홍석영

차례

- 10 편집위원 칼럼 < 신돈철 >
- 12 신성철 칼럼
- 14 이선진 전대사의 대사일기
- 19 최진열의 경제를 말한다
- 20 집중! 이 사람/ 코참 송창근 회장
- 23 공감, 인도네시아 < 김성월 >
- 26 우리는 잘 지내고 있는걸까?
- 28 건강과 땀 이야기
- 32 이제는 여행도 스마트하게/ 박상훈 칼럼
- 35 2016년 7월 경제브리핑 < 자카르타 경제신문 >
- 40 경제포커스 < 황윤홍 >
- 42 지상갤러리 < 최미선 >
- 44 천연기념물 동굴에서 더위를 식히자 /월간 문화재 사랑
- 46 행복에세이 < 김현숙 >
- 48 인도네시아 민법 < 이승민 >
- 50 가상공간을 통해 확장되는 욕망 < 조홍길 >
- 53 이 표현이 맞나요? < 최서혜 >
- 56 말라카 해협
- 58 김종성의 생활법률/ 그것이 궁금하다
- 61 핑거루트
- 62 올림픽이야기
- 65 생활정보



광복70주년 거리행진(서울 광화문)

디자이너 : Diki Satria Nugraha [@ddoodle]



빠응 파파야

신돈철/편집위원

21층 아파트 노을이 별경게 달아오른 내 얼굴을 감춰줘서 좋다. 생각이 많은 저녁 시간이다.

여느때처럼 양동이 물 한그릇 담아 손끝으로 물을 주고 있었다. 베란다의 초록이 눈앞에서 검붉게 아파트 밑으로 달려내려갔다. 유난히 목을 빼들고 자신을 봐 달라는 녀석이 있다. 한그루 파파야 나무다. 식모가 뿌려놓아 싹을 틔운 녀석이 내 키를 훌쩍 넘어 윗집에 인사라도 할 기세다. 두개의 작은 열매가 열려 나의 보호본능을 자극케해 비바람 칠때는 안절부절 못하게 했다.

생명의 힘은 정말 위대하다. 다 크지도 않은 채 여물어 어느덧 까만씨를 가진 파파야 열매가되어 4쪽으로 나뉘어져 식구들의 후식이 되었다. 오늘 자세히 보니 꽃한송이 끝에 봉긋한 알갱이가 달려 있다. 참 신기하다. 21층 아파트엔 나비도 없고 벌도 없는데 어떻게 노란색 파파야꽃이 거둬해서 결실을 얻는 것일까?

맞은 편 아파트 베란다에는 멀리서도 색깔이 선명한 짙은 핑크빛 꽃이 핀다. 내게 가끔 자신의 색 자랑을 하듯 강렬하게 나의 눈을 자극한다. 다른 초록은 보이지 않는데도 그 집 베란다는 풍성한 울림으로 나에게 소나타를 연주해준다.

눈을 좀 더 아래로 내리면 노란색 몸통을 한 대나무 몇그루가 초록과 어울려 베란다 담장을 친다. 길가다 쳐다보는 나그네도 없는데 늘 그랬다는듯이 어깨동무하며 집안을 감싸고있다. 집주인은 집안에서 사군자를 치고있지는 않을까?...

아파트가 숨을 쉬고 있다. 아니 베란다에 앉아 내가 숨을 고르고 있다. 아침 모종이 아직 끝이 나지 않았다. 농사를 짓는것도 아닌데 등에서는 송글송글 땀이 배었다.

이번에는 내가 직접 파파야 씨앗을 심는다. 농사꾼의 심정으로 정성을 들이는 내 모습을 아내가 부엌창 유리넘어로 알수없는 미소만 띠 채 물끄러미 쳐다본다. 미래의 내 모습을 상상이나 하듯이... 이미 주인있는 화분옆 모퉁이 땅을 세 내어 뿌린 씨앗이 싹을 터, 오히려 주인보고 나가라 할 기세로 자라는건 너무 오버다 싶다. 다른 화분에 옮겨 심었는데도 속아내야 할 판이다. 햇빛도 제대로 쬐지않는 베란다 화분에 어떻게 이렇게도 아옹다옹 싹을 티울까?...

아파트 헬스장의 러닝머신앞 통유리창 너머는 몇그루의 키가 큰 나무가 첫 걸음을 땔 때부터 인사한다. 나는 그저 물끄러미 쳐다보는데 고개 뺨뺨이들고 내 걸음걸이를 카운트한다.

내가 걷는속도로 제 몸을 흔들어 내 가쁜 호흡과 동무한다. 갑자기 어지럽다. 그도 그럴것이 날이면 날마다 찾는 헬스장이 아니니 오늘은 살짝 과했다 보다. 아니 그게 아닌것 같다. 몇 마리의 참새떼가 공중비행하는 걸 쫓아가다 그만 못볼걸 봤기 때문이다. 아침 햇살 받으며 쫓고 쫓기는 사랑놀이를 훑쳐보다 그만 러닝머신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몇분이나 걸었다고 다리가 풀린것일까? 창피한듯 걸논 질로 다시 오르려다 그냥 아파트 헬스장을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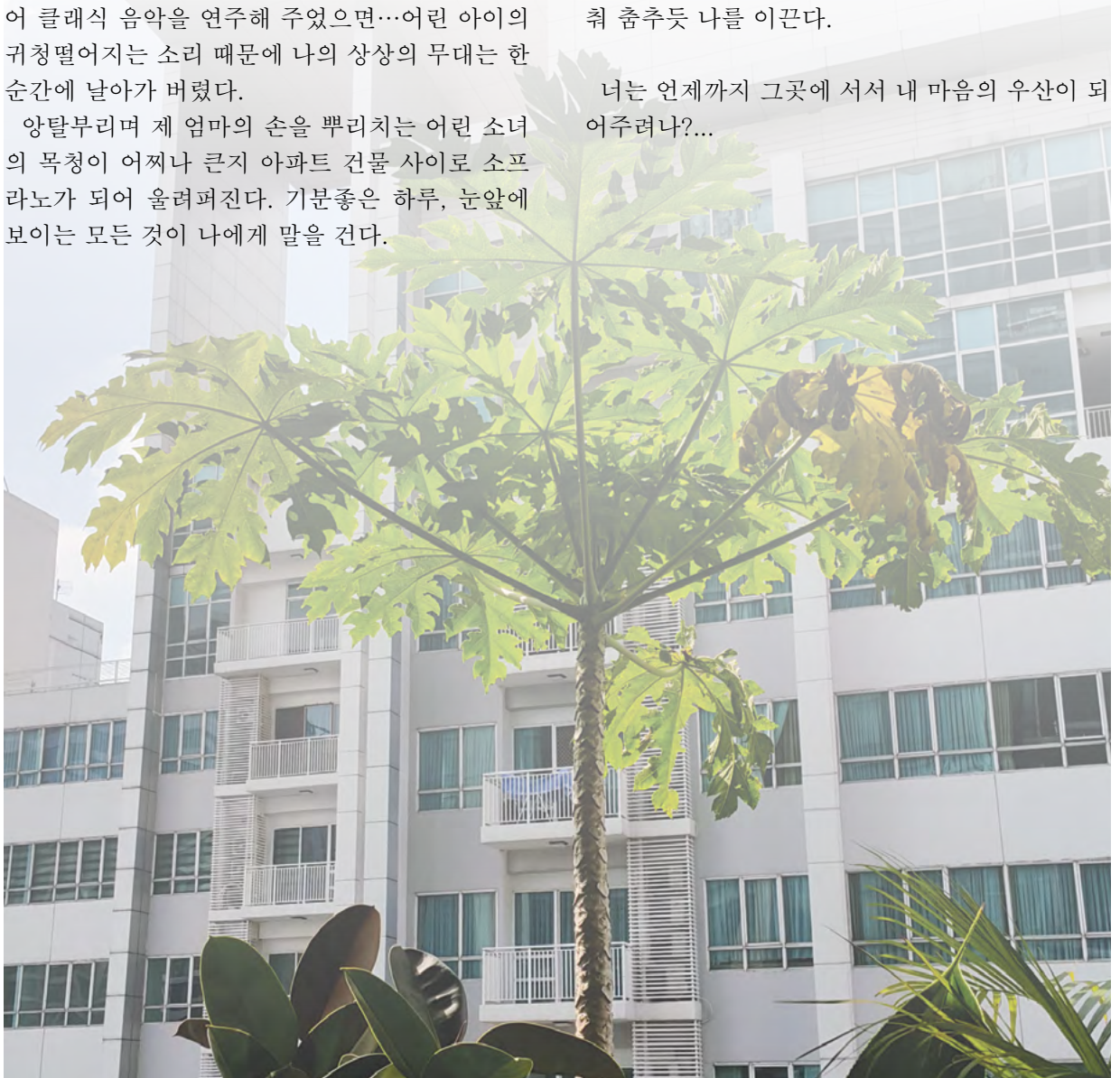
따가운 햇살인데도 불현듯 걷고 싶어 아파트 정원을 걷는다. 처음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수년이 지났는데도 아파트는 아직도 꽃단장중이다. 참 느긋한 일정으로 아파트는 제 모습을 찾아간다. 만들었다 부셨다 다시 고치는 일이 일상이 된듯하다. 연못인듯 아닌듯 만들어 놓은 네모난 물웅덩이도 수난을 받는다. 차라리 용도를 알 수 없는 그 웅덩이를 메꾸어 푸른 정원을 좀 더 넓혔으면... 나무를 더 심어 그늘을 더 만들었으면... 의자를 더 많이 설치해 컴퓨터 만들었으면... 아니 무대를 만들어 클래식 음악을 연주해 주었으면... 어린 아이의 귀청떨어지는 소리 때문에 나의 상상의 무대는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다.

양탈부리며 제 엄마의 손을 뿌리치는 어린 소녀의 목청이 어찌나 큰지 아파트 건물 사이로 소프라노가 되어 울려 퍼진다. 기분좋은 하루,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이 나에게 말을 건다.

유난히 긴 아침시간을 보낸다. 커피 한잔 머금고 한국에서 보내오는 아침 라디오 방송을 듣는다. 낮익은 선율에 어느덧 흥얼거리기까지 한다. 파바로티의 '네순 도르마'가 우렁차면서도 감미롭다. 용재오닐의 '섬집아가기' 비올라 연주는 눈시울까지 붉게 만든다.

21층 아파트의 아침이 무르익어간다. 밖에는 '여기가 인도네시아다'라고 어느새 장대비가 내리고 있다. 넓은 파파야의 잎에도 후두둑 후두둑 비가 내린다. 가녀린 몸매로 빗소리 장단에 맞춰 춤추듯 나를 이끈다.

너는 언제까지 그곳에 서서 내 마음의 우산이 되어주려나?...





《 신성철 칼럼》

“자카르타 대중교통 이용률 60% 시내 주행속도 35km로 개선”

글: 신성철 데일리인도네시아 대표

‘교통지옥’ 자카르타, 교통종합계획 2030년까지 완료 목표

자카르타 한인들은 현지 교통상황에 대해, “걸어가면 10분, 차를 타면 1시간”이라고 농담처럼 불평을 털어놓는데, 이 말은 더 이상 농담이 아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오토바이를 사서 타고다녀야겠다”라고 뉘두리를 늘어놓기도 한다.

2014년부터 본격화된 도시철도(MRT)와 고가도로 건설공사로 도로 곳곳이 끊겨 시내 차량 주행속도가 시속 8~9km이며, 상습 교통체증 구간은 주차장을 방불케한다. 자카르타는 세계에서 가장 교통난이 심한 도시 1위에 올랐다. 2015년 자동차운활유업체 캐스트롤 조사 결과, 자카르타 도로에서 차량이 ‘가다 서다’를 반복한 횟수는 연 3만 3,240차례로 조사 대상 78개국 중 가장 빈번하다.

최근 자카르타 중심도로에 카풀제(3-in1)를 폐지하면서 원래부터 심각하던 차량정체가 더는 참기 힘든 수준까지 악화하자, 당국은 지난 7월 27일부터 카풀제 구간에 차량 홀짝제를 1달동안 시범 운영한 후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고육책을 내놨다.

이처럼 차량정체가 목까지 찬 상황에 이르자, 자카르타 당국이 교통지옥 탈출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당국은 지난 6월 열린 자카르타외신기자

클럽(JFCC) 회원들을 대상으로 연 자카르타 교통종합대책 설명회에서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2018년부터 자카르타 교통사정이 개선되기 시작해 2020년부터는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정도로 크게 개선되고, 2025년에는 교통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낙관했다.

자카르타주정부 교통국 수나르디 시나가 부국장은 “2008~2012년 5년동안 자카르타의 연평균 차량 증가율은 8.1%인 반면, 연간 도로 증가율은 0.01%이다”며 “대도시의 적정한 도로 비율은 10% 이상이지만 자카르타는 전체 면적 대비 도로 비율이 6.2%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시내버스 무단 정차, 차선과 신호 위반 등 낮은 교통의식도 교통체증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자카르타 낮시간 2천만명 활동... 대중교통 이용률 15% 불과

자카르타 주민 1천만명과 보고르, 버카시, 땅그랑, 데벡 등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2천100만명 등 수도권의 인구는 총 3천100만을 웃돈다. 자카르타 인구는 1천만 명에 이르지만 수도권에서 자카르타로 출근하는 인구 1천만 명을 합치면 낮 시간에 자카르타에서 활동하는 인구는 거의 2천만 명으로 늘어난다.

수도권 전체로 보면 하루 이동인구는 총 2,570만명이며, 이 중 75%인 1,920만명이 승용차와 오토바이 등 개인차량으로 이동하고 15% 정도가 버스와 통근열차를 이용하며 나머지는 도보나 자전거로 출퇴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카르타를 포함한 수도권에는 오토바이 1,840만대와 자동차 640만대 등 총 2,480만대의 차량이 움직이고 있다. 이 중 자카르타에는 오토바이 1,310만대, 자동차 440만대가 각각 운행되고 있다.

교통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 2030년 대중교통 이용률 60%, 시내 주행속도 35km

자카르타 주정부는 2030년까지 대중교통 이용률 60%와 시내 주행속도를 시속 35km를 목표로 하는 중장기 교통수요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과 기반시설 확충, 승용차 이용 줄이기, 주차수요 관리강화 등 3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단기적으로는 버스웨이를 운행하는 트란스자카르타 버스 증차와 위성도시와의 환승체계 구축 등 다양한 시내버스 정책을 수립해 대중교통 이용을 생활화할 방침이다. 현행 중심도로에서 시행하고 있는 홀짝제는 2017년 전자식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ERP(Electronic Road Pricing)를 도입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ERP는 블록엠-꼬따(12.7km)와 꾸닝안-쭌꼬로아미노또(4.3km) 구간에 설치된다.

‘지능형 교통제어시스템 (ITS · Intelligence Transport System)을 채택하고 도로 확장, 고가도로 형태의 도심통, 걷기 편리한 보행도로를 건설한다. 고가도로 형태로 건설하게 될 도심통은 라와 부아야-순떠르(18.95km), 순떠르-뿔로가동(14.73km), 두리뿔로-깜뿔멀라유(11.38km), 울루자미-따나아방(8.27km), 꼬마요란-깜뿔멀라유(9.64km), 빠사르밍구-카사블랑카(9.56km) 등 총 6개 구간, 연장 72.53km다.

자카르타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도심철도(MRT) 1호선의 1단계인 르박블루스-호텔인도네시아 구간은 2018년 연말에, 2단계인 호텔인도네시아-꼬따 구간은 2020년에 완공한다. 자카르타를 동서로 연결하는 도심철도 2호선인 썬까랑(서부자바주)-발라라자(반뜰주) 구간은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가 한국철도시설공단(KRNA)과 합작한 자카르타 경전철(LRT) 1호선의 1단계 사업이 지난 6월 22일 착공했다. 미래의 교통수단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경전철은 철도 운송수단의 한 종류이며, 지하철과 같이 대규모 여객 운송이 아닌 소규모 운송수단으로 도시의 교통문제뿐 아니라 도시를 균형있고 통합적 발전에 적합한 교통체계라고 평가되고 있다.

자카르타 경전철 종합계획에 따르면 총 7호선으로 건설될 계획이다. 1호선 끌라빠가딩-꼬바요란(21.8km), 2호선 따나아방-뿔로마스(17.6km), 3호선 조글로-따나아방(11km), 4호선 뿌리꿈방안-따나아방(9.3km), 5호선 빠썩-끌라빠가딩(20.7km), 6호선 썬빠까뿌띠-안쭌(10km), 7호선 수까르노하따-꼬마요란(18.5km) 등이다.

자카르타 망가라이역과 수까르노하따국제공항을 연결하는 공항철도는 내년 초에 완공될 예정이다. 또 보고르, 땅그랑, 버까지와 자카르타를 연결하는 통근열차도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수나르디 시나가 부국장은 “도심철도(MRT)와 경전철(LRT), 버스웨이(BRT) 등 3개 축을 2030년까지 통합 운영해 대중교통 중심 도시 구축과 교통수요관리를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려 한다”며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버스웨이 이용 생활화 같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사일기 제4화

“노무현 대통령과의 인도네시아 방문(2006.12)”

노무현 대통령 내빈,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



노무현 대통령 내빈,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

지난 12월 30-31일, 노무현 대통령 내빈은 인도네시아를 국빈 방문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4일 수석외교장관 노근호 대령장의 동행으로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에 도착했다. 노 대통령은 4일 12시 30분, 노무현 대통령 내빈을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 도착했다. 노 대통령은 4일 12시 30분, 노무현 대통령 내빈을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 도착했다.



노무현 대통령 내빈,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

노무현 대통령은 4일 수석외교장관 노근호 대령장의 동행으로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에 도착했다. 노 대통령은 4일 12시 30분, 노무현 대통령 내빈을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 도착했다.

노무현 대통령 내빈,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



노무현 대통령 내빈,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

노무현 대통령은 4일 수석외교장관 노근호 대령장의 동행으로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에 도착했다. 노 대통령은 4일 12시 30분, 노무현 대통령 내빈을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 도착했다.

특별 기고

다시 부상하는 인도네시아 -한-인니 '전략적 동반자관계'

인도네시아는 지난 4월 28일 노무현 대통령을 국빈 방문했다. 노 대통령은 4일 12시 30분, 노무현 대통령 내빈을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 도착했다. 노 대통령은 4일 12시 30분, 노무현 대통령 내빈을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 도착했다.

노 대통령은 4일 12시 30분, 노무현 대통령 내빈을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 도착했다. 노 대통령은 4일 12시 30분, 노무현 대통령 내빈을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 도착했다.

(3) 향후전지

30여년 외교 현장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정상 합의 사항들이 사장된다는 사실이다. 국가 정상의 외국 방문을 준비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가고, 긴 협상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1-2년 지나면 누구도 기억 못한 채 사장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변 4강국 이외의 국가들과의 합의는 이러한 경향이 특히 심하다.

나는 노무현, SBY 대통령 사이 합의 사항도 누군가 챙기지 않으면 곧 사장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걱정되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인니 관계를 정상으로 회복되도록 하겠다는 금년 초의 마음가짐을 다시 떠올렸다. 대통령 일행이 귀국할 즈음(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후 호주 방문)인 12월 하순 장문의 전보를 발송하였다. 노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방문 기간 중 여러 차례 약속한 대로 한국 기업인 방문단의 파견과 장기적 대 인도네시아 투자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건의한 것이다. 수신 처는 외교부, 경제부처, 국방부, 산림청

외에 청와대 수석 비서관실도 여러 곳 포함시켰다. 대통령이 약속한 만큼 관계부처에 맡기지 말고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는 무언의 압력이었다.

한편, 노 대통령을 수행하여 한국 기업의 그룹 회장/사장단, 경제 단체장, 국영 기업 사장 포함 수십 명이 자카르타를 방문하였다. 그들은 나에게 인도네시아에 대한 인상이 들던 것과 전혀 다르다고 말하였다. 1998년 수하르트 대통령 퇴진 이후의 사회 혼란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 와보니 사회가 매우 안정적이라고 말하였다. 그 때 나는 아하! 한국 기업의 CEO나, 투자 결정자들이 인도네시아에 그릇된 인상을 가지고 있는 한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한국 기업인 방문단, 그것도 고위급 인사들이 방문하여 인도네시아의 실상을 보고 것이 가장 급선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후일담 몇 가지

다음 해 2007.2월 공관장 회의 참석 계기에 산업자원부 장관을 찾아갔다. 노 대통령을 수행했던 정 세균 장관이 경질되고, 신임 장관은 노 대통령이 약속한 경제인 인도네시아 방문 계획에 소극적이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한국 기업인 해외 방문단을 구성할 때 장관이 가느냐, 아니면 그 아래가 가느냐에 따라 참가하는 기업인의 수준과 참가 규모가 달라진다. 따라서 무조건 장관이 참가해야 하며, 그 기회에 양국 장관 후원 하에 민간 차원의 “에너지 포럼” 내지 에너지 관련 협력기구 설립도 내심 계획하고 있었다.

듣던 대로 신임 산업자원부 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를 가느냐, 아니면 인도네시아 가느냐 하는 문제를 두고 고민하고 있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가는 것도 노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약속하였다고 한다. 나는 산자부 장관이 일정상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듣고 인도네시아를 방문해달라고 매달렸다. 자카르타로 돌아 온 후에도 상무관(산자부에서 파견된 대사관 직원)을 시켜 산자부 담당과를, 나는 개인적 친분 관계가 있는 산자부 차관에게 압력을 계속 넣었다.

결국 산자부 장관은 2007.5 월 200 명에 가까운 대규모 기업인 방문단과 함께 자카르타를 방문하였다 (이 부분의 상세는 후술). 이 기회에 정부와 기업이 함께 참가하는 “한-인도네시아 협력단(Task Force)” 이 구성되었고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어 7월 SBY 대통령이 대규모 인도네시아 기업인들을 이끌고 한국을 국민 방문하였고, 이와 별도로 100여명의 인도네시아 중소기업 및 지방 기업인을 한국에 파견하였다. 양국 기업 사이 본격적인 교류가 시작되고, 그 결과 한국의 투자는 2004년도 3천만 불 수준에서 2007년 3억 불(실제 투자)을 넘었다. 내가 있는 3년 사이 한국의 투자가 10 배나 증가한 셈이다. 한국의 투자가 2012년 거의 10억불 수준(실제 투자)에 도달하였다고 하니 격세지감이 있다.

노 대통령은 어느 나라를 가던 숙소에 도착 직후 그 나라 주재 한국 대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부부 참석). 그리고 마지막 날 공항 출발 직전에 대사부부에게 작별 인사할 시간을 준다. 마지막 작별인사 기회에 인도네시아의 부정부패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노대통령이 “이 대사님, 우리 사회도 이제 많이 깨끗합니다. 공무원의 부정부패는 많이 정리되었고, 다만 돈 선거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선거 자금 때문에 생기는 부정부패를 어떻게 막느냐 하는 문제로 고민 많이 하고 있다” 고 말하였다. 노 대통령이 기업으로 받은 돈 때문에 자살하였을 것이라는 언론보도를 보고, 나에게 한국의 부정부패에 관하여 진지하게 말하던 노대통령의 얼굴이 선하게 떠오르면서 심한 충격을 받았다.

대통령 일정은 국가 안위에 직결되는 만큼 비밀이 유지되어야 한다. 실제 북한이 한국 대통령을 겨냥하여 버마 아웅 산 테러 사건을 실행한 예도 있다. 그러나 보안을 이유로 대통령의 방문 일자를 최후까지 미루다 출발 직전에 발표하는 우리의 관례는 바뀌어야 한다. 발표 전까지 비밀로 묶어놓고 이것이 깨질 경우 보안위규를 이유로 실무 직원들이 곤욕을 치르기도 한다. 민간 차원의 경제 및 문화 교류가 중시되는 현대 외교에서 의전이나, 비밀주의에 매여서는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

나는 대통령 방문 문제가 정부 간 논의 개시되던 2006년과 2007년 일찍부터 우리 기업들에게, 또한 주재국 주요 인사들에게 구체적 일자는 말하지 않고 “금년 중” 이라는 정도로 언급하면서 실질 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찾거나, 발굴하도록 독려했다. 기업이 큰 사업을 발굴하고 협상에 걸리는 시간은 몇 년 아니면, 최소한 몇 달이 걸린다.

나는 의전 행사 준비 문제를 차석 공사에게 전적으로 일임하고 수시로 진행사항 보고만 받았다. 공사, 참서관들은 모두 20년 이상의 직업 외교관이자 여러 차례 정상방문을 준비한 경험자들인 만큼 맡겨도 된다는 판단이었다. 그들은 실제 모두 열심히 하였고, 완벽하게 준비하였다. 다만, 다음과 같은 태극기 건은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해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다.

대통령 일행이 인도네시아 일정을 마치고 호주로 향할한 다음 날 한국 언론에 4괘(四卦)가 잘못 그려진 태극기를 인도네시아 의장대가 쥐고 있는 사진이 났다. 대통령의 의장대 사열은 국가 최고 수준의 의전이 되어야 함에도 실수가 나온 것이다. 국민 방문 시 여러 용도 및 크기의 태극기가 사용된다. 길거리에 걸리는 태극기, 손에 드는 태극기, 정상회담장에 걸리는 등 다양한 태극기가 필요하다. 의장대가 드는 태극기는 그중 하나이며 가장 큰 사이즈이다. 그 나라가 원하면 한국이 태극기를 제작하여 제공하기도 한다. 태극기 4괘가 잘못 제작되거나 걸린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자존심이 강한 나라인 만큼 자기들이 제작하겠다고 하였다. 대사관 담당자가 인도네시아 외교부 측에 몇 차례 주의를 주었고, 실제 행사 당일 날 대통령궁을 돌면서 태극기가 잘못 제작되거나 잘못 걸려있는지를 체크까지 하였다. 그러나 의장대가 감아쥐고 있는 태극기마저 보자고 할 수 없었으며, 대통령 사열 직전에 펼쳐진 태극기를 우리 기자가 용케 발견하였다. 나는 즉시 호주에 있는 외교부 장관에게 사과와 함께 어떠한 처벌도 감당하겠다는 전보를 보냈다. 다행이 아무런 처벌은 없었다.

작별인사를 나누고 공항으로 가던 차 중에서 집 사람과 다투었다. 내가 대통령 도착 첫 대면 보고 때 제기했던 문제를 마지막인사를 가서 다시 꺼낸 것이다.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에 대한 실태 조사와 지원 방안을 건의한 것이다. 이 문제는 사실 대통령 방문 몇 개월 전부터 나와 대사관을 괴롭혀 온 문제이다. 2만 명을 고용하던 한국 기업이 망하여 빚 청산을 하지 못하고 떠나서 대사관이 현지 은행, 노동자 및 협력 업체(한국 및 인도네시아)로부터 계속 시달려 왔고 대사관 앞에서 데모도 몇 차례 있었다. 대통령 방문기간 중 길거리 데모라도 있을까 전전긍긍하였으나 다행히 조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년 이후 매년 1-2만 명을 고용하던 한국 업체가 하나씩 망하였고, 대통령 방문에 즈음해서도 한인사회에는 야반도주 가능성이 있는 업체들의 명단이 입소문으로 돌기도 하였다.

그래서 도착 첫날 이 문제를 조심스럽게 꺼냈으나 노대통령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작별 인사하는 자리에서 이 문제를 다시 꺼내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대한 대통령의 반응은 역시 덤덤하였다. 이것을 지켜보았던 집 사람이 공항으로 가는 차중에서, 처음 꺼냈을 때 대통령이 반응을 보이지 않는 문제를 왜 눈치도 없이 다시 꺼냈느냐고 불만하였다. 나는 그것이 바로 대사가 할 일이라고 대꾸하였지만 내심 내가 정말 눈치 없는 사람인가하고 자문 해보았다. (대사의 일기 제4화 끝)





“동포구제사업은 국익을 위해서도 필요”

재인도네시아 한인회(회장 양영연), 재외한인구조단(대표 권태일)과 업무협약 체결

2016년 7월26일, 사단법인 월드쉐어 재외한인구조단은 한인회를 방문하고, 어려움에 처한 재외한인을 돕기위한 업무협약을 한인회와 체결하였다.

권태일대표는 이 자리에서 “720만 재외동포 중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힌 재외한인이 20만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불법체류상태에 있는 한인들은 국가차원에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다. 이들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 이에 각국의 한인회장들을 통해 관련업무를 체계화하고자 인도네시아 한인회를 방문하였다” 고 말했다.



양영연한인회장은 “동포들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해결책 도모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영연한인회 회장과 이명호총영사, 박상훈영사, 박병삼목사, 재외한인구조단 권태일대표와 홍영식국장 및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동포안내문

한-아세안 FTA를 이용해 인도네시아와 한국간 수출입업무에 관한 안내

한-아세안 FTA 원산지 규정에 의하면 FTA 특혜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화물이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직접운송되어야 합니다.

만일 해당 화물이 환적(제3국 항구에서 배를 바꾸는 것), 경유(배를 바꿈이 없이 제3국 항구에 잠시 정박만하는 것) 등, 제3국을 거쳐 인도네시아로 운송될 경우, FTA 특혜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제3국을 거쳐 화물이 운송됐지만 직접운송된 것과 같다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금년 6월 말부터 인도네시아 세관에서 직접운송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있어 동포 여러분들의 주의가 요망됩니다.

현재 제3국 경유 또는 환적 화물에 대해 인도네시아 세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원산지 증명서, 통과선하증권(Through B/L), 각종 상업서류, 그리고 경유또는 환적지 세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

(제3국 항구에서 화물의 품질, 안전, 보관을 위한 필요조치 외에는 아무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확인서) 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통과선하증권((Through Bill of Lading)

한-아세안 FTA 원산지 규정상 직접운송이 아닌 제3국 경유 또는 환적시 수입국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선하증권으로 일반 선하증권과 달리 선하증권상 중간 경유 또는 환적지가 표시되는 선하증권

동 조치는 2015년 11월 17일 개정된 국제협약에서의 관세부과절차에 관한 인도네시아 재무부장관령(205/PMK.04/2015)에 의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아세안 FTA를 이용해 인도네시아로 화물을 수입하시는 동포 여러분들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Korindo Peduli Lingkungan, Aksi Bersih Ciliwung”

코린도 그룹은 조림과 산림업에 종사하는 기업으로(자카르타 - 보고르 구간)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찢리웅 강의 수질이 쓰레기로 인해 오염된 것을 안타깝게 여겨 코린도와 보고르 찢리웅시에 위치한 주식회사 Aspex Kumbong (제지회사)과 함께 Sempur 흔들다리 부근 청소를 통해 “Aksi Bersih Ciliwung” (깨끗한 찢리웅 강 만들기) 캠페인을 시행했다.

코린도 그룹 승범수 사장은 “깨끗한 찢리웅 강 만들기” 캠페인은 2014년 시작한 CSR프로그램으로 현지 주민들에게 깨끗한 물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해 줄 긍정적 에너지를 펼칠 수 있는 중요한 활동이라고 전했다. 코린도 그룹은 “깨끗한 찢리웅 강 만들기” 캠페인을 매년 시행하고 있다.

코린도와 주식회사 Aspex Kumbong (제지회사)는 2016년 깨끗한 찢리웅 강 만들기에 외국인 직원을 포함한 코린도 그룹 직원들이 현지 주민들과 동참한다.

본 활동은 보고르 시 정부가 지원하고 Sempur 동장과 동사무소 직원들이 동참하며 강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캠페인을 통해 직원들과 주민들에게 환경의 중요함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주요한 활동이다.

“깨끗한 찢리웅 강 만들기” 캠페인의 팀장이며 코린도 그룹 인력관리총무부 부장인 J. Andre Roberto는.



“7월 27일 강의 날을 맞아 시행되는 본 캠페인을 통해 인도네시아 전역의 강이 깨끗해 지길 바란다. 코린도 그룹의 이 작은 움직임이 교두보가 되어 인도네시아 정부가 인도네시아의 수질을 높이고 깨끗한 강을 실현하는데 시너지 효과를 가져왔으면 한다” 고 전했다.



인도네시아, 조세사면 시행

글: 최진열 부장(KEB 하나은행)



인도네시아 국회가 지난 6월28일 본회의에서 조세사면(Tax Amnesty) 법안을 처리했다. 조세사면제도는 납세자가 탈세 등을 목적으로 정부에 보고하지 않았던 자산 및 소득을 일정 기간 내 신고하고 미납 세금을 납부 시 처벌이나 벌금을 면제 또는 경감해 줌으로써 은폐된 자금을 양성화하고 정부는 세후 증대 효과를 도모하는 조치이다.

금번 처리된 법안은 해외에 은폐된 자금을 올해 7월부터 내년 3월까지 자진 신고하면 자금의 출처를 묻지 않은 채 최소한의 세금만 부과하고 법적 책임을 면제해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세율은 국내외 은닉 재산을 신고하고 정부에서 지정한 자산 및 기간 동안 투자 시 신고 시점에 따라 2~5%, 단순히 신고만 할 경우 4~10%가 적용된다. 정상세율은 25%이다. 해외에서 반입되거나 국내에서 신고된 재산은 지정된 금융기관에 인도네시아 국채 및 주식 등의 형태로 3년간 투자되어야 한다.

금번 조세사면은 경기둔화 압박 및 인프라투자에 필요한 재원 확보 어려움에 직면한 정부가 추가적인 세수 확보를 통해 지속적인 경제개혁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은 2015년 4.8%에 이어 2016년 1분기 4.92%를 기록, 5% 대 성장률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라 올해 상반기 세입 규모가 전년동기대비 3.3% 감

소함으로써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도로, 항만, 철도 등 인프라 투자를 위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세사면의 또다른 배경으로 2018년 시행 예정인 자동정보교환(AEOI,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협약을 들 수 있다. AEOI 협약 발효 시 조세회피처에 은닉된 계좌 정보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간에 교환됨으로써 조세회피 및 재산축적관련 부정이 밝혀질 경우 징벌적 세금이 부과가 가능하게 된다. 금번 조세사면 입법은 AEOI 협약의 발효 효과를 실질적으로 1~2년 앞당기는 셈으로 현 대통령 임기 내 경제성장의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려는 정부의 의지 표명으로 해석된다.

조세사면 시행에 따른 기대 효과는 크게 은닉자산 양성화에 따른 과세 기반 확대, 회수된 자금의 국내 투자에 따른 주식 및 채권시장 활성화, 외화유입 증가에 따른 루피아 가치 상승 등을 들 수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조세사면에 따른 세수증가를 최대 53조 규모로 추정하고 조세사면에 따른 경제성장률 상승 효과를 0.3%p까지 기대하고 있다. 블랙시트 등 비우호적인 글로벌 경제 여건 하에서도 상반기 중 인도네시아 주식 및 채권시장이 여타 신흥국 대비 선방하는 모습을 보인 것 역시 조세사면 효과에 대한 기대가 선반영된 것으로 시장은 해석하고 있다.

조세사면의 효과가 정부의 기대대로 가시화될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해외 자산 은닉이 국내 규제 회피 및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이루어진 부분도 있고, 과거 조세사면을 실시한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도 실제 세수 증가 효과가 정부 기대에 크게 못미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번 조세사면 조치가 인도네시아 정부의 경기 부양 및 경제 성장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시장에 던지는 시그널은 현재까지는 분명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집중! 이 사람



한인상공회의소의 수장으로 연임된 4대 송창근 회장 과의 인터뷰

1. 한인상공회의소(이하 코참) 주요사업 및 연혁

1991	한인회 산하 6개 상임분과위원회 중 상공분과위원회로 설치 운영
1999	재인도네시아한인상공회의소(KOCHAM) 조직 확대개편(초대 승은호 회장)
2000	10월 구제역으로 인한 한국가축 수입 규제 해결
2001	10월 노동부장관 초청 노무간담회/ International Business Chamber(IBC) 가입
2004	신정부 경제로드맵 작성 참여
2005	11월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한인기업인 간 조찬간담회
2006	11월 인니 외무부와 EPG에 한인상공인 건의서 전달, 12월 대한상공회의소와 MOU 체결
2007	10월 부산상공회의소와 업무협력의정서 체결
2008	2월 유습칼라 부통령과 경제간담회, 11월 무역부장관 초청 간담회
2009	신정부 경제 로드맵 작성 참여
2010	10월 한-인니 산업기술 협력 포럼
2011	2월 인도네시아 진출 우리기업의 사업환경 개선을 위한 보고서 발간
2012	1월 APINDO와 MOU 체결, 3월 유도요노 대통령 초청 경제 간담회, 9월 산업부 장관 간담회
2013	7월 상공회의소 확대발족(3대 회장 송창근)
2014	6월 신정부 경제 로드맵 작성 참여, 3월 무역부 장관 간담회, 9월 경제조정부 차관 간담회
	11월 대구상공회의소 MOU 체결, 12월 미국상공회의소와 MOU 체결
2015	3월 노동부장관 초청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개최, 4월 한국거래소 MOU 체결, 11월 투자제한보고서 건의서 전달
2016	2월 무역부장관 초청 비즈니스다이얼로그, 인도네시아 진출 우리기업 투자환경 개선보고서 발간

2. 회원사수와 임원사수 :

임원 및 사무국 수: 52개사 / 회원사 수: 250개사

3. 2016 주요활동계획

- 1) 2015년과 같이 정부가 정한 규정에 따라 노사정이 큰 혼란 없이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힘을 쏟을 것이며, 작년에 발표된 최저임금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인니 정부 및 인니 경제인 연합회(APINDO)와 긴밀히 협력할 것임.
- 2) 상공인 친선모임(연말 중)을 통해 상공인들과의 긴밀한 유대관계 확립
- 3) 국세청 간담회 개최
- 4) 관세청 간담회 개최
- 5) 노동부 간담회 개최
- 6) 제15차 세계한상대회(제주) 참여 및 전적으로 지원

4. 장기적 계획

- 1) 주간 인니 경제 정보 공유
인도네시아 정부의 경제개혁(Economy Reformation)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도 신속하고 정확한 인니 정부 경제 뉴스가 필요. 이를 주간 별로 모든 회원사에 공유함으로써 무지로 인한 피해 방지에 최대한 노력.
- 2) 코참 사무국 역량 강화
현재 20명의 조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무국 봉사자들의 인니 정부, 현지 유력 경제인들과의 긴

밀한 유대관계를 구축하고 경제특강을 통해 본인들의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향후 한인사회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원.

- 3) 해외 가장 역량 있는 경제단체로 자리매김
조직적이고 실질적인 운영을 계속하면서 인니 정부, 인니 경제단체, 인니 주력 인사들과의 끊임없는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 기업인들의 고충과 의견이 잘 전달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자체 역량 확고히 다짐.
- 4) 배우는 한인상공회의소 (월간 특강 프로그램)
정부 고위 관계자, 인니 유명인사, 해외 유명인사를 수시로 코참 주간회의에 초청하여, 특강을 통해 배우는 상공회의소 회장단, 사무국, 회원사가 되도록 더욱 배움의 기회를 확대.

5. 인도네시아 정부와의 협력사항

한인 기업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관 학계 다방면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인도네시아 경제 발전을 위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 중.

6. 한국 상공회의소와 협력사항 :

2006년 MOU 체결한 이래, 매년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개최 지원.

7. 타국가 상공회의소와 협력사항

2001년부터 국제상공회의소(IBC) 회원으로 활발히 활동 중이며 인니 주요 경제 안전에 대해 인니 정부에 공동 대응 중. 2014년 미국 상공회의소와 MOU를 체결하여 긴밀한 관계 유지. APINDO(경제인총연합회)와 KADIN(인도네시아상공회의소)과도 주요 경제 이슈에 대해 공동 대응.



“ 해외에서 가장 역량있는
경제단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

8. 회원사 혜택

- 최신 업데이트 된 주요 경제 동향을 이메일로 매주 발송.
- 직속 노동 자문관 및 세무/관세 자문관과의 상담을 통해 회원사 경영상 애로사항 항시 해결책 제시.
- 코참 및 유관기관 주최 각종 설명회 및 간담회에 참여하여 최신 정보 숙지.

9. 상공회의소와 한인회와의 협력사항

한인회는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 한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대표기관이라면, 상공회의소는 한인기업인들의 권익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기여하고 한인경제를 대변하며 방향성을 이끌어 주는 경제단체. 두 단체 모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희생하며 섬기는 자리로 소통과 논의를 통해 한인기업뿐만 아니라 한인 동포사회가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할 것입니다.

10. 한인 동포나 기업인들에게 바라는 사항

이제 인도네시아도 문민정부의 출범으로 엄청난 변화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내적으로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부 고위층의 부패 방지의 본이 되기 위한 변화가 확산되고 있고, 외적으로 아세안 공동체 발효로 인한 아세안 국가 간 보이지 않는 경쟁이 치열합니다. 해외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한편, 해외 투자자들에 대한 준법 요구도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인니 정부는 저조한 세수 실적으로 인해 세수 결손을 방



지코자 국세청과 국회가 Tax Amnesty 법을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니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인, 주변 해외 국가들도 해외 재산 인니 반환 움직임에 대해 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 기업인들도 인니 정부의 세수 압박이 점점 강화될 것을 인지하고 세무, 회계, 경리 등 좀더 투명한 자료 준비와 전문성을 한층 강화해야 할 시기라고 사료됩니다.

최근 법적인 문제로 고통 받는 한인 기업인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주인이 아니고 손님인 것을 항상 인지하여, 현지법을 잘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손님으로 살고 있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한인동포사회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되고 민간 외교사절단이라는 거시적인 생각으로 대사관, 한인회, 한인동포사회가 삼위일체가 되어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7월23일 코참주간회의



반잣삐낭 (Panjat Pinang)



Jazz Market By The Sea,
Bali

반잣삐낭(Panjat pinang)은 ‘삐낭나무에 올라가는 것’을 말한다.

반잣삐낭은 주로 8월 17일 인도네시아 광복절에 전국적으로 많이 하는 게임이다.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 식민시절 때 시작되었다. 축제 때 치즈나 설탕 옷가지 등을 나눠 주면서 값비싼 물건들은 삐낭나무에 달아 놓았다. 기름칠로 미끄러운 삐낭나무 꼭대기에 달린 물건들을 쟁탈하도록 한 경기이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오직 그 물건들을 갖기 위해 사람이 층층이 어깨를 밟고 올라서서 꼭대기의 물건을 따기 위해서 도전한다.

물건이 손에 닿을 듯 말듯하다가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미끄러져 와르르 넘어지는 모습을 보고 네덜란드 사람들은 재미있어 웃고 즐기던 것에서 유래한 것이다.

요즘은 삐낭나무가 흔하지 않아 대나무를 사용하기도 한다. 만드는 방법을 보니 윤활유를 두껍게 여러 번 칠하여 미끌미끌하게 만들었다. 실제로 반잣삐낭을 보면 그 누구도 웃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반잣삐낭에 대한 찬반론이 있다. 인격에 대한 가치를 손상시키는 것이라 금지해야 한다와 서로 협동하여 좋은 팀워크를 보여주기 위해 계속 전해져야 한다는 찬반론이 주장이 논의되고 있다.

김성월/ 수필가. 방송코디네이터
hansol0508@daum.net



KOICA, 중장기자문단 공동 워크숍 개최



우리나라 대외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김인식)은 지난 7월15일(금) 우리정부가 파견하여 인도네시아에서 활동 중인 중장기자문단의 공동 워크숍을 KOICA 인도네시아 사무소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금번 워크숍에는 KOICA 인도네시아 사무소 김병관 사무소장과 주인니 대사관 남호성 행정관을 비롯하여 KOICA 와 정보산업진흥원(NIPA)의 자문단 등 18명이 참석 하였다. 자문단 파견사업의 성과발표와 분야별 대표적인 활동 사례를 비교 및 공유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토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인도네시아 내에 비자 문제와 최근 사회적 큰 문제로 떠오르는 안전에 대해 안내를 하고 대처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현재, 인도네시아에는 모두 10명의 자문단이 중소기업부, 공공사업부, 행정개혁부, 경제조정부, 정보통신부, 무역부, 수라바야대학교, 표준화 연구소에 파견되어 정책 수립지원과 기술적 자문 등의 활동을 하며, 각 부처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여러 정부부처와 기관에서 다양한 분야의 자문단 파견을 요청하고 있어 이러한 수요에 맞춰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 자문단 파견인원을 확대해 나아갈 예정이며, KOICA는 개별 자문단 활동에 머물지 않고 상호 전략적 연계와 활동영역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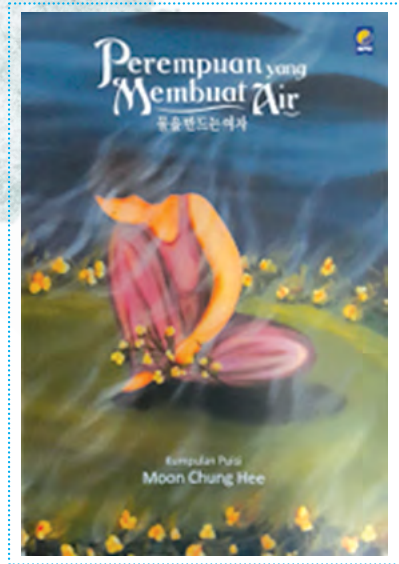
문정희 시인 초청 강연회 안내

문정희 시인, 한국 시인으로는 최초로
10월/13~15일, 국립 족자카르타 대학 (Yogyakarta State University)
국제학술세미나에 특별 초청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지부는 한국시인 최초로 오는 10/13~15일, 국립 족자카르타 대학 (Yogyakarta State University)에서 열리는 국제학술세미나에 특별 초청되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문정희 시인을 7월 22일 서울에서 만났다. 문정희 시인은 인도네시아에서 세계 4대시인에 선정된 최초의 한국 시인이다.

이 자리에는 지난 4월, 문인협회가 주최한 명사초청 문학강연(자카르타 한국문화원)에서 ‘내 인생에 힘이 되어주는 시-사랑과 고통의 이해와 본질’에 대한 주제로 한인들에게 감동의 시간을 선사한 정호승시인도 함께 자리했다.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시인으로는 처음으로 현지 그라메디아 출판사를 통해 번역 시집인 ‘Perempuan yang Membuat Air’ (물을 만드는 여자/ 한국외대 전태현교수 번역)를 출판한 문정희 시인은 지난 2014년 그라메디아 출판사 베스트셀러 기록에 오른 최초의 한국 시인이기도 하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탄탄한 독자층을 형성하고 있는 문정희시인의 이번 국립 족자카르타 대학 (UNY) 국제학술세미나의 주제는 ‘지구에서 온 편지 / 물을 만드는 여자’ (인도네시아 번역시집)를 통해 인니의 대표 문학평론가이자 문인인 ‘나닝 프라토노’가 대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문정희시인의 작품세계에 대한 인터뷰를 갖는다.



국립 족자카르타 대학 (UNY), 국제학술세미나에 앞서 한국문협 인니지부는 세미나 전날인 10/11일~12일경에 자카르타(현재장소미정)에 초청해 한인들을 위한 문학행사인 <문학으로 만나는 세상>을 개최할 예정이다.

행사 다음날인 10/13일에 문정희 시인과 함께 떠나는 ‘족자카르타 문학기행’을 준비해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교민 독자들께 함께 출발하여 자카르타와 족자에서 문정희시인과 직접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한다.

자세한 프로그램은 추후 한인 매체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문정희시인의 대표 시집으로는 [꽃숨], [절레], [남자를 위하여], [오라, 거짓 사랑이여], [양귀비꽃 머리에 꽃고], [다산의 처녀], [나는 문이다], 신작시집인 [웅], 과 산문집 [문학의 도끼로 내 삶을 깨워라]등 다수가 있다.

현대문학상, 소월시문학상, 육사문학상, 동국문학상, 천상병문학상, 나지문학상, 한국예술평론가 최우수예술가상, 시카다상 등을 수상했다.

고려대 문예창작과 교수를 거쳐 현재는 동국대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우리는 잘 지내고 있는 걸까?

최우호 (BINUS UNIVERSITY 학생)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자카르타의 교통체증이 익숙해졌다 싶었지만 차안에 갇혀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깊어지는 한숨 소리에 땅이 꺼져버릴 것만 같다. 나는 자카르타 동쪽 외곽지역에 살고 있는데 오전 11시에 집을 나서 세노빠띠에 있는 단골 미용실에서 머리카락을 자르고 혼자 자장면 한 그릇 먹는 소소한 행복을 누리고 집에 도착하니 날이 저물어 간다. 이곳에선 머리카락 한번 마음에 들게 자르고 오려면 만나질은 소모해야하고 차비에 이발비, 점심값을 지불하고 나면 지갑까지 훌쩍해진다. 훌쩍해진 지갑을 보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차라리 머리를 뽁뽁 밀어버리고 1년에 한번 정도 연중행사로 삭발식을 거행한다면 연애는 못할지언정 정신건강에는 더 이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자카르타 시내와 20KM 남짓한 거리에 사는 내 모습이 이런데 수까부미니 수방과 같은 곳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은 오죽할까. 내가 다니는 교회 청년부 모임에 나가보면 원래 기독교가 아닌데 한국 사람이 그리워서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되었다는 청년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자카르타를 벗어난 소도시에도 의외로 많은 한국인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에 온지 얼마 안 된 신입사원들도 상당수 있다. 친하게 지내던 한 청년 얘기를 해보자면, 그는 처음에 인도네시아에 와서 꽤 괜찮은 현장관리직으로 입사해 부푼 꿈을 안고 근무지인 수까부미에 갔는데 주변에 놀거리는 아무것도 없고, 한국인도 60세가 다되어 보이는 소장님 한분 밖에 없었다고 한다. 낯선 생활의 외로움을 이겨내

기 위해 시시때때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등 각종 SNS에 새로운 곳에서의 일상을 공유하며 그 재미로 몇 달을 버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SNS에 공유할 소재가 떨어져 결국 방충망에 붙어있는 대왕 나방까지 텅커벨이라며 사진찍어 올리는 수준에 이르자, 본인이 지쳐 끝내 토요일에 일을 마치고 족히 5시간은 걸리는 자카르타행 원정을 시작했다. 그는 일주일 전부터 주말 약속을 확정하고 필요한 자금을 넉넉히 준비해 오곤 했다. 평일에 일이 끝나면 자기개발은 고사하고 외로움에 사무쳐 맥주 한잔에 억지로 잠을 청했다.

무조건 5년 경력은 쌓을 거라던 그는 결국 1년도 안 되는 짧은 해외취업 탐방을 마치고 귀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과연 현재 우리는 기회의 땅 인도네시아에서 얼마나 많은 기회를 살리며 살아가고 있을까? 무엇이 힘들고, 무엇이 즐거운지, 다만 젊은 날 잠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외국생활의 단상에 젖어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진단해볼 시간이 필요하다.

7월의 어느 토요일 새벽 5시 30분. 자카르타 모컨설팅사의 직원 단합 등반대회에 끼어 짜빠나스(Cipanas) 산행을 함께 하게 되었다. 사장님 말씀에 따르면 이번 산행의 목적은 자기성찰이라고 하신다. 일주일간 업무에 치이고, 회의에 치이고, 고객에게 치이며 고대하고 고대하던 황금같은 토요일에 늦잠이라도 폭 자고 싶으련만 밝은 표정으로 산행에 나선 그들의 모습에 응원의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3시간 남짓 걸려 도착한 등산로 입구에서부터 숲속의 맑고 산뜻한 공기가 내 전두엽을 자극하기 시작한다. 전두엽은 기억력, 사고력 등을 주관하고 다른 영역에서 들어오는 정보들을 조정해서 행동을 조절하는 기관이다. 실험에 따르면 스마트폰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기능이 저하되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고 명상, 사색, 글쓰기를 하면 전두엽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등산을 할 때 사색에 빠지기 딱 좋으니 등산 또한 전두엽 발달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리라. 나는 일행들의 후미에서 혼자 사색을 즐기며 산행을 시작했다. 출발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등산로 바닥에 버려진 수많은 쓰레기들을 보며 내 손에 들린 빈 물병도 버릴까 하다가 가방에 넣었다. 내 편의를 위해 남들 다하는 걸 따라하고 싶은 마음은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다.

사람들은 종종 이런 사소한 일뿐 아니라 본인의 삶에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할 때도 자신의 소신보다 남들의 모습을 따라하다 큰 후회를 하기도 한다. 그렇다고 본인의 강한 소신으로 결정한다면 후회하지 않을까? 나는 강한 소신과 믿음으로 내 젊음을 불사르러 이곳에 왔다. 하지만 내 위치에서 열심히 한다고 나름 바쁘게 살았는데 2년의 시간을 되새기며 뒤를 돌아 봤더니 눈에 보일만한 이렇다 할 소득이 없어 실망했고, 더 열심히 나아가야 할 앞을 보니 서른이 다 되어 10살 어린 동생들과 대학교를 다녀야 할 내 모습에 앞이 캄캄하다. 실망과 후회, 자책감이 밀려오며 목적지를 향한 내 발걸음이 점점 더뎠다.

큰 바위틈에 홀로 핀 손톱만한 보라색 꽃이 간밤의 폭우 때문인지 축 늘어져 처량해 보일 찰나, 우거진 나무사이로 드는 찬란한 햇별이 꽃을 따듯하게 감싼다. 시시때때로 햇별이 꽃잎에 내려앉겠지만 이 꽃은 느끼고 있



을까? 누군가 자신을 처량하게 쳐다볼 때 그 시선에서 지켜주는 햇별의 고마움을. 저 꽃도 보잘 것 없는 씨앗에서 싹이 트고 연약한 새싹이 되어 강한 비바람 견뎌내라, 애벌레들의 공격을 견뎌내라 많은 고통을 이겨내고 예쁜 보라색 꽃을 피웠을 것이다. 이렇게 산행의 묘미일까? 조금 전까지 너무 무겁던 발걸음이 작은 꽃과 햇별으로 인해 다시금 가벼워졌다. 저렇게 작은 꽃도 해냈는데 내가 못해낼까? 힘을 내어 건다보니 어느덧 목적지에 도착했다. 인도네시아에서 처음 보는 장엄한 폭포와 차가운 계곡물. 10미터도 넘어 보이는 높이에서 떨어져 시원하게 부서지는 물줄기를 보고 있자니 이 시간만큼은 내 가슴속에 맺혀있던 답답함, 조바심 그리고 모든 불만들이 저 물줄기처럼 산산히 부서져 나가는 것 같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잠시 아무 생각이 없어졌다고 해야 할까. 고민, 걱정을 모두 내려놓고 당장 눈앞에 대자연의 풍경을 감탄할 뿐이다. 일행들도 나와 같았던지 밝은 표정 덕분에 단체사진이 참 예쁘게 나왔다.

교통 사정상 2.5KM의 짧은 산행이었지만 내 마음이 힘들어지면 언제든지 다시 오겠노라 다짐하며 산을 내려 왔다. 집에 돌아와서 이번 산행에서 본 보라색 꽃과 햇별을 떠올리며 많은 생각을 해봤다. 우리는 지금 없는 것을 느낄 때의 불만 때문에 있는 것들에 대해 느끼고 고마움을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다. 타지 생활이 많이 힘들지만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함을 느낀다면 지금보다 더 여유로운 삶이 될 것이다.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가족, 젊음, 건강,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 온 결과물들. 이모든 것에 감사함을 느끼며 가끔 자기성찰의 시간을 갖고 되돌아보고 반성도 하며 아프지만 씩씩하게 성장해 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한다.

건강과 땀이야기

“땀, 잔병치레를 감시하는 초병”

성인병 있으면 과도한 땀은 피해야

당뇨병이나 심장병 등 만성 질환자들은 땀을 지나치게 흘리면 위험할 수 있으므로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땀으로 수분을 많이 배출하면 혈당치가 급격히 올라가 저혈당에 빠질 위험이 있다. 심장 질환자도 마찬가지다. 심장병 환자가 복용하는 강심제는 체내 전해질 속에 칼륨이 있어야 제 기능을 하는데, 칼륨이 땀과 함께 많이 배출되면 강심제를 먹어도 심장 수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응급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갑상선기능항진증은 땀을 많이 흘리고 가슴이 뛰는 증상을 보이는 병인데, 날이 더울수록 증상이 더욱 심해져 정상인보다 훨씬 더 빨리 지치게 된다. 또 뇌졸중 등으로 의식이 없어, 평소 누워 있는 환자의 경우에도 탈수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또, 소변량이 줄거나 입과 혀바닥 등이 말라 까칠해지고 피부 탄력성이 떨어질 때는 탈수증을 의심해야 한다. 출산 후 다이어트를 위해 무리하게 땀을 흘리는 것도 금물이다. 옛날에는 출산 후 뜨거운 방에서 땀을 흠뻑 흘리는 것이 좋다고 했지만 이는 신체의 체온조절기능을 망가뜨려 오히려 건강을 해치기 쉽다. 신경성 위염이나 만성 위염, 십이지장 궤양 등 위장질환이 있는 사람들도 여름철에 증상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좋은땀이란?

5분만 운동해도 땀을 흘리면 건강하다는 증거다. 운동은 땀샘 기능을 활성화한다. 대부분 운동한지 30 ~ 40분이 지나면 몸속에 축적된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이 포함된 나쁜 성분들을 포함한 땀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좋은 땀’이다. ‘좋은 땀’을 흘리기 위해서는 아침에 30분~1시간 정도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새벽에 땀을 흘리면 수분을 보충할 기회가 많지만 저녁에는 수분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고 잠자리에 들기 쉽기 때문이다. 땀샘에서 배출되는 땀도 노폐물 배출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만 진짜 몸에 좋은 땀은 피지샘에서 나오는 땀이다.

피지샘에서 나오는 땀에는 콜레스테롤이나 피하 지방 같은 여분의 기름과, 피로의 원인이 되는 젖산, 몸속에 축적된 수은, 카드뮴, 납, 중금속, 다이옥신 등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몸속의 나쁜 성분들을 땀으로 배출하면 혈액이나 림프선의 흐름이 좋아지고 피로, 두통, 어깨 결림, 요통 같은 만성질환도 개선이 된다. 하지만 일반적인 가벼운 운동이나 목욕 정도로는 피지샘이 쉽게 열리지 않는다. 피지샘을 열기 위해서는 피하 깊숙이까지 따뜻하게 해서 땀을 흘리는 것이 필요하다. 지나친 운동이나 사우나로 빼는 땀은 나트륨, 칼슘, 마그네슘 등의 이온이 함께 빠져나가 체내 전해질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 이럴 경우 손발이 저리거나 근육 경직되고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다. 간혹 몸속의 혈액이 농축돼 혈액순환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적당한 땀은 건강을 유지하는 필수 조건이지만 몸에 좋은 땀은 쾌적한 온도에서 자연스럽게 흐르는 땀이다.

수분과 염분 섭취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혈액의 염분 농도는 0.9%이다. 운동초기에는 대개 0.3%의 염분 농도로 땀이 배출되고, 그 후 차차 낮아져 운동후기에는 염분 농도 0.2%의 땀이 배출된다. 땀으로 아무리 염분 소실이 늘어나도 사실은 수분 손실이 훨씬 많다. 따라서 운동전 그리고 운동 초기에는 물을 섭취하고, 운동 중에는 10 ~ 15분 간격으로 100~200cc 정도의 물 또는 이온 음료를 섭취하는 것이 좋다. 운동 중에 갈증을 느끼면 이미 수분 손실이 진행된 것을 의미하며, 그 때는 수분 공급을 해도 몸에서 요구하는 충분한 양을 보충하기 어렵다. 갈증이 오기 전에 미리 수분 또는 이온 음료를 공급하는 것이 좋다. 운동 후에도 수분은 충분히 보충해야 한다. (이온 음료의 염분농도는 0.2%가 조금 안된다.)

운동을 안 할 때도 자주 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물은 과하게 마셔도 희석된 소변만 배설되기 때문에 소변으로의 염분 배설량은 증가하지 않는다.

비타민 제제나 항산화제를 복용하는 것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운동으로 흘린 땀, 잔병치레를 감시하는 초병이다

운동은 건강한 여름, 건강한 사계절을 보내는 한 방법이기도 하다. 단, 흘린 땀만큼 반드시 그 만큼 충분히 수분을 보충해야 한다. 또 여름철에는 다른 계절에 비해 운동 능력이 감소한다. 이를 무시하는 무리한 운동은 약이 아니라 해가 될 수 있다.

땀이 많이 나면 대체로 음식을 적게 먹는 것이 좋다. 소고기, 도라지, 고사리, 콩, 울무 등이 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매운 음식이나 튀김 등 고칼로리 음식, 카페인 이 든 기호 식품은 땀 배출량을 늘리므로 피해야 한다.



저자 : 이홍식

제공:서울아산병원 생활속건강

시간의 축적 바틱(Batik), 빛과 만나다

주최: 서울예술대학교 주관: 한인회 한*인니문화연구원



예술과 과학의 융합 등을 통해 우리 예술의 세계화를 꾸준히 추진해 나가고 있는 안산에 위치한 서울예술대학교는 지난 6월 30일 예술공학센터(ATEC)에서 ‘시간의 축적 바틱(Batik), 인도네시아의 전통 예술 혼을 만나다.’라는 전시회를 개최했다.

바틱의 전통 문양과 기법에서 영감을 받아 바틱을 재해석해 바틱의 미래를 선보였다. 한세예스24문화재단과 자카르타 직물박물관이 후원하였다. ‘숭고한 경지로 이끄는 명상의 매개체 BATIK’이라는 주제로 한·인니 문화연구원 사공 경 원장이 특강을 진행하였고, ‘Batik · Atec · Media의 융합으로 새로운 빛을 향해서’라는 주제의 체험전은 자카르타 직물박물관에서 진행하였다. 전시는 사공 경원장의 소장품 바틱을 디지털 기술로 재해석하여 현대적 감동을 전하고, 관람객을 위한 체험공간을 뉴 폼 아트(New Form Art)로 연출함으로써 인류의 보편적 정서로 확장하고자 하였다. 체험공간에서는 투사 이미지 만들기, 모션 센싱 기술과 DJ 퍼포먼스를 융합한 바틱을 체험할 수 있었다. 어우러진 와양 퍼포먼스는 가믈란과 국악과 더불어 또 다른 미래를 연출하였다.

1,600년 전통의 섬유예술 바틱(Batik)은 민속 패션의 관점에서 우리 전통 예술 혼과 맥을 같이 하는 ‘인도네시아의 영혼’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문화예술교류를 확대하고, 서울예대가 미래의 예술을 고민하고 또 그 흔적을 공유하고자 마련된 본 전시회에서, 이 정우 학생(미디어창작학부 4학년)



은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는 말을 들어왔지만 그것에 대해서 다소 오해를 하고 있었다. 세계의 흐름에 발맞춰 우리 전통을 새롭게 해석하는 시도야 말로 젊은이들이 끊임없이 해나가야 하는 과제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사공 경 원장은 “이 전시회의 부제인 ‘시간의 축적’ 이야 말로 바틱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인 것 같다. 바틱은 현재진행형의 전통이다. 우리나라는 전통을 그대로 보존하고 과거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전통이 곧 현재의 삶이 된다. 더 나아가, 이 전시회는 기술과 융합해 미래를 지향한다”라고 말했다. 서울예술대학교 유 덕형 총장은 “전통 예술이 원래의 형태로만 남아있는 경우, 현대에서 세계 관객을 끌어들이기 어렵다. 이는 바틱의 유서 깊은 예술을 보는 경험으로 연결하고, 최첨단 기술을 융합해 경계선을 넘는 새로운 형태의 예술을 만들어내는 차원의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바틱은 지도 위에 넓게 펼쳐 있을 뿐 아니라 정글의 속처럼 깊은 인도네시아와 닮아있다. 이러한 바틱에 내재된 생명력, 예술성, 우주원리, 과학성, 휴먼 드라마를 서울예술대학교가 가진 창조적인 잠재성과 융합하여 새로운 예술실험을 통해 미래 예술의 세계성과 철학을 재발견하고자 본 전시회는 기획되었다.

한*인니문화연구원 인턴 서울예술대학교 조혜수(문예창작학과 3학년)





지난 3년간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 교장 김승익)에 근무해 온 김승익 교장이 한국으로 귀임하게 되어, 7월 21일(금) 나래홀에서 이임식을 거행하였다.

이임식은 학교장의 지난 3년간 학교활동 사진을 모아 제작한 동영상 상영하여 발자취를 돌아보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이어서 어린이회장단이 떠나시는 교장선생님께 편지를 써서 낭독하여, 아침마다 등굣길에 따뜻하게 맞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리고 전체 학생들이 ‘스승의 노래’를 제창하였는데, 많은 학생들이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다. 또한 전교사가 무대에 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노래를 합창하면서 정든 학교장을 떠나보내는 아쉬운 마음을 전했다.

이 날 이임식의 특별 순서로 승은호 재단이사장의 감사패가 전달되었는데, 조규철 재단이사께서 대신 전달해 주셨다.

김승익 교장은 이임사에서 학생들이 방학기간 동안 재충전하며 즐거운 방학을 보낼 것을 부탁하였으며, 어디에 있든지 JIKS에서의 즐겁고 소중한 추억을 간직할 것이라고 하면서, 한국에서 꼭 다시 만나 못다한 이야기꽃을 피우자고 하였다. 마지막 순서로 김승익 교장이 학생들 사이로 뜨거운 배웅을 받으면서 이임식장을 퇴장하였다.

8월 9일자로 한국으로 귀임하시는 교장선생님은 이곳에서의 근무 경험을 살려 서울시 학생들의 세계시민교육과 다문화교육에 기여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제는 여행도 스마트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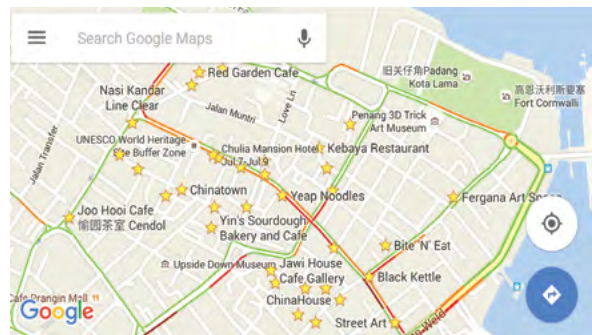
박상훈 (sanghoon.pak@gmail.com)
Worldwide Logistics Indonesia 법인장

독자분들 모두 르바란 휴가 잘 보내셨나요?

르바란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한국으로 또는 다른 여러 곳으로 여행을 다녀오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르바란 기간 동안 가족들과 함께 말레이시아 페낭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여행을 준비하면서 저는 인터넷의 다양한 서비스들의 도움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이 없었다면 정말 여행 준비하는 것이 불편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인터넷 서비스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어느 곳으로 여행을 떠나더라도 편리하게 여행 정보를 검색하고, 여행관련 예약을 진행하고, 편안하게 여행을 즐기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이번 여행 준비하면서 제가 사용했던 서비스들을 짚 나열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행정보를 얻기 위해서 다양한 블로그와 Tripadvisor를 참조했습니다. Tripadvisor의 경우 여행지에 대한 여행자들의 생생한 리뷰를 확인할 수 있고, 특히 여행지에서 맛집과 호텔을 찾기에는 아주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모바일 APP도 지원을 하고, 호텔의 경우에는 유명 예약사이트들의 가격 비교를 제공하며, 맛집의 경우에는 구글 지도와의 연동과 전화

번호, 영업시간 등을 제공합니다. 아래 사진은 제가 Tripadvisor를 통해서 이번 여행 기간 중에 가고 싶은 맛집이나 여행지를 구글맵에 표시해 둔 사진입니다. 이렇게 구글맵을 이용하면 동선을 짜기에도 좋고, 여행지에서 길을 찾아 돌아다니는 시간을 많이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비행기와 숙박 예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행기의 경우 저는 Airasia를 이용했고, Airasia는 자체 웹사이트에서 직접 티켓을 예약하고, Check in 서비스까지 온라인으로 제공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항공권을 검색해 보시기에 요즘 가장 편한 사이트는 Traveloka가 있습니다. 저가항공에서 일반 항공사까지



목적지 별로 검색 가능하며, 인도네시아 내 숙소와 항공권은 비교적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서비스인데도 상당히 깔끔한 UI(User Interface)와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도네시아 국내 여행에서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서비스로 판단됩니다. 숙박의 경우 저는 Booking.com과 Airbnb를 이용했습니다.

이 외에도 Agoda 등의 유명 숙박 예약 사이트가 있지만, 환율 적용은 전반적으로 Booking.com이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호텔 예약할 때는 Tripadvisor같은 가격 비교 사이트를 이용해서서 진행하시는 게 가장 좋은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길입니다.

숙박의 경우 요즘에는 호텔이 아닌 다른 옵션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소개해 드리고 싶은 서비스인 Airbnb 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서비스의 시작과 특징은 이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행을 좋아했던 창업자는 자신의 집에 빈방을 이용해서 민박을 할 수 있다면 향후 여행경비를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 빈방에 Air Bed(바람으로 부풀려 만드는 간이침대)와 breakfast를 여행객에게 제공하는 조건으로 일정의 수입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이름이 Air(bed)&b(breakfast)입니다. 이 서비스는 현재 세계 각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서비스가 되었고, Airbnb의 가치는 200억 불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를 드리면 현재 전 세계 주요 호텔 체인 1위인 힐튼이 219억 불, 2위인 메리어트가 159억 불이니 그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Airbnb를 이용하면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의 민박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자카르타의 경우에도 주요 지역의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Airbnb에 올라와 있는 것도 확인 가능합니다. Airbnb는 어떻게 이런 전 세계적인 채널을 갖출 수 있었을까요?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편의성과 가격인 것 같습니다. Airbnb를 이용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



지만 시내 중심부의 아파트도 5성급 호텔의 절반 가격이면 묵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 가족처럼 12세 이상의 아이가 둘 있는 4인 가족은 해외여행 시 호텔 예약하는 것이 정말 만만치 않은데요, 12세 이상의 아이가 둘일 경우 방 하나를 더 잡아야 한다는 호텔에서부터, 조식 추가, 엑스트라 베드 추가 등 굉장히 복잡한 옵션과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Airbnb에 올라오는 아파트나 숙소는 4인 가족이 이용하기에 상당히 편합니다. 추가 비용이 조금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4인 가족이 쉴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기에 특히 도시로 여행을 하실 경우 Airbnb는 상당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행지에서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서비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여행에서 가장 유용했던 서비스는 UBER였습니다. 이번 여행기간 동안 우버에 탑승한 횟수만 20회가 넘습니다. 말레이시아를 기준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경우 택시비의 2/3 정도의 가격에 이용 가능했고, 택시를 잡기 위해 시간을 낭비할 필요도 없었고, 택시비를 주기 위해 따로 잔돈을 준비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친절한 우버 기사들의 서비스는 덤이었습니다. 여행지에 Uber가 된다면 꼭 Uber APP을 설치하시고 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는 이런 서비스들 덕분에 이번 가족여행에서 즐거운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서비스들 이용해서서, 더욱 스마트하고 가족과의 즐거운 시간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행 계획 한번 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름 방학을 보내는 법



(학생기자 JIS 정주은)

자 카르타 국제학교(JIS)는 대학교 체제와 비슷하게 6월 초에서부터 8월 초까지 두 달 남짓 긴 여름 방학이 있다. 아이비 디플로마 (IB Diploma) 과정을 앞둔 10학년 학생이라면 아이비 학원에 다니는 경우가 많고 12학년을 앞둔 학생들이라면 EE (Extended Essay)와 그 외에 스펙으로 간주하는 활동들을 하기에 바쁠 것이다. 한국으로 가서 SAT나 TOEFL 또는 IB 학원에 다니는 것이 보편적인 여름 방학 일정이다. 하지만, 이 기사를 통해서 다른 시각과 목적으로 방학을 보내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자 한다.

우선 아이비 디플로마 과정을 앞둔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아이비 학원을 굳이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아이비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는 나의 경험으로만 바탕으로 나온 편협한 조언이 아니라 내 주변에 아이비 학원에 다녀본 학생들의 경험 또한 반영한 것임을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다. 흔히들 아이비 학원을 “보험”이라고 표현한다. 즉, 아이비 학원은 기존에 들었던 과목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과목들과 시스템을 접한다는 두려움을 해소해줄 수 있는 하나의 보증이라는 것이다. 체계적으로 짜인 학원 시스템을 통해서 미리 선행 학습을 한 학생들은 그렇지 못한 학생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아이비 프로그램에 적응할 기회가 주어진다. 하지만 그 적응 기간의 차이가 확연하게 벌어지는 것은 아니다.

아이비 디플로마 과정은 9, 10학년 동안 배웠던 교육 과정과는 확연히 다른 교육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 그렇기에 이를 한 달이나 두 달로 압축한 아이비 학원으로 이 모든 과정을 선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학원의 체제가 JIS의 아이비 체제와 같다고 100퍼센트 보증할 수도 없다. 같은 아이비 디플로마 과정을 보유한 학교일지라도 어떤 과목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다 다르다. 같은 학교일지라도 그 안에서 어떤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대한 차이도 항상 있다. 그러므로 아이비 학원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던 학생

들이 막상 학교에서 직접 아이비 과목을 들을 때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더 나아가서 아이비 학원을 한 번 들은 학생은 2년 내내 방학마다 아이비 학원에 다닌다. 이는 학생들이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일 때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학원이나 그 외에 다른 것들에 의존하게 한다. 좀 더 넓은 그림으로 보면 앞으로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벗어나 대면할 변화들은 학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보다 학원 없이 이겨내야 하는 것들이 더 많다. 따라서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일 때 스스로 고군분투하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위한 매우 값진 경험을 잊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두 번째로 방학 동안 독서를 체계적으로 하는 습관을 들여라. 독서를 하면 사고의 폭이 넓어진다는 말은 어렸을 때부터 귀에 딱지가 앉게 들은 말일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를 실제로 경험에 옮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실제로 책은 학업이 줄 수 있는 교육 이외에 다른 가치관과 배움을 얻을 수 있는 길이다. 독서는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음으로써 다양한 분야에 해박한 사람들의 경험과 가르침 그리고 가치관을 배우고 이를 통해 통찰력을 넓힐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많은 학생이 독서에 습관을 들여서 독서의 깊이를 경험했으면 한다.

두 달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값진 시간이다. 방학을 단순히 학원을 가는 시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고민하였으면 좋겠다.





2016년 7월 월간 경제 브리핑

제공:자카르타경제신문(pagi.co.id)

밤방 재무부 장관 “외국인 투자 감소할 것”

밤방 브로조노고로 재무부 장관은 자금 본국 송환이 잘 이뤄진다면 민간 분야에서 외채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외채가 자본 또는 자산 등의 형태로 변모할 것이라는 게 장관의 생각이다.

밤방 장관은 또한 외국인이 소유한 것으로 된 국내 비율도 줄어들고 국내 소유 비율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주 대통령 궁에서 밤방 장관은 “인도네시아 국적의 투자자가 싱가포르 등 특별목적회사(SPV)를 통해 투자한 자금들이 국내 소유주의 이름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밤방 장관에 따르면 일부 투자자들은 자신의 투자 형태를 외국인직접투자(FDI)에서 국내투자(DCI)로 바꾸겠다고 밝혔으며, 이로 인해 FDI 비율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세 사면법이 18일부터 시행되면서 국가 세수 또한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자금이 흘러들어오게 되면, 국내 외환 보유고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에 따르면 6월 16일 기준 인도네시아 외환보유고는 1,097억 9,000만 달러였다. 밤방 장관은 은행 유동성 또한 증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밤방 장관은 루피아화 가치가 현재 매우 높은 수준인 것 같으며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상품의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 현재 일부 국가 중에는 자국 통화를 평가절하하면서 자국 상품 경쟁력을 유지하는 곳도 있다”고 장관은 설명했다.

인니 섬유업계, 올해 수출 경쟁력 저하로 침체 전망

인도네시아 섬유업체협회(API)는 올해 섬유 제품 수출액이 전년 대비 1% 증가한 123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API는 인도네시아 정부에 국내 섬유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부양책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다.

13일 현지 언론 인베스톨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아테 수드라жат API 회장은 “2분기(4~6월) 국내 판매와 수출 모두 정체돼 있어 연간 수출액의 전년 대비 3% 증가 목표 달성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비관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또한 “국내 구매력도 침체되고 있어 연말

에는 국산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30%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아테 회장은 “정부의 전력 요금 할인 등의 부양책이 섬유업계의 실적 향상에 실질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베트남과 경쟁하기 위해 유럽과 미국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반덤핑 과세 등 기존과 다른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PI 측은 현재 이란과 터키 등 새로운 수출 시장을 모색하고 있는 단계로, 조만간 대표단이 양국을 방문할 계획이다.



외국인들 '뿔랑' 하며 인니 경제 먹구름

“경기가 어렵더니 자카르타에 한인들 수가 많이 줄었어요. 자카르타 밴드만 봐도 뿔랑(Pulang, 온 곳으로 돌아감)한다며 살림살이 내놓는 글들이 자주 올라오더라고요” 4년째 인도네시아 거주 중인 김 모씨는 자신의 인근 이웃은 물론, 전반적으로 인도네시아를 떠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비단 재인도네시아 한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외국인 비율이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원자재 가격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관련 기업들은 일자리를 대폭 줄였고, 이와 동시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인 체류자에 관한 규정을 더욱 강화했다.

2013년 19만 4,162건에 달했던 외국인 임시체류 허가 건수는 지난해 17만 1,944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발행된 임시 체류증이 7만 2,399건인 점을 미루어보면, 올해 체류증을 발급받은 외국인 수는 더욱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인도네시아 내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면서 자카르타 고급 주택 수요는 물론, 국제학교 입학자 수도 줄었다. 국제 이사 운송 업체인 엘라이드 픽포즈의 고문인 데보라 미니콜라는 “2016년에 특히 외국인 체류가 가뭄이 돋보인다” 면서 다각도에서 외국인 커뮤니티가 타격을 입었다고 말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외국인 유출로 인해 고가 상품 소비가 감소했으며 실업률도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주재원 등으로 파견된 외국인은 인도네시아에 체류하며 운전기사, 가정부, 정원사, 경호원 다수를 고용하는 데, 고용주가 빠져나가면서 현지인들도 새 일자리를 구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동부 깔리만탄 발릭빠빰에 소재한 호주사립학교

는 올해 학생 36%가 줄었다고 밝혔다. 광산 업자들이 많은 위 도시에서는 최근 원자재 사업이 어려워지자 외국인 유출이 심화됐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근 3년 동안 문을 닫은 국제학교만 세 곳에 달하며, 외국인들의 급여 수준도 예전 같지 않아 지역 경제가 위축된 양상이다.

일각에서는 외국인들이 인도네시아를 떠나면서 기술 이전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것을 염려하고 있다. 원자재 수출에만 의존하고 있는 기존 인도네시아 경제 구조를 타개하려면 선진 기술을 습득해야 하는데 이를 전수해줄 외국 인력이 없다는 거다.

인도네시아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원자재 수요가 급감했고 이로 인해 석유·가스, 광산 분야에 적용되던 인센티브도 확연히 줄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지자 관련 업계에서는 인력을 줄여 비용을 절감할 수밖에 없었다.

광산, 석유·가스, 지역 분야는 2015년 인도네시아 국내총생산(GDP)의 7.62%를 차지했다. 이는 2011년 11.81%였던 것에 비해 4.19% 하락한 수치다. 업계 관계자는 계약체결 및 탐사측량 등은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언급했다.

인도네시아 석유·가스 분야에는 셰브론, 토탈, 엑손모빌 등 글로벌 기업이 진출해 있다. 토탈 인도네시아 대변인은 사측 개혁에 따른 인력정책이 있다고 밝혔으며 셰브론과 엑손 측은 이에 대한 언급을 회피했다.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혼란 가중

지난 5월 회계·컨설팅사인 PwC가 석유가스 기업 53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업 세 곳 중 한 곳은 외국인 고용 규정이 매우 까다로워 향후 외국 인력을 최소화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꼬 위도도(조꼬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경제 ‘빅뱅’ 을 일으킬 목적으로 기존 외국인들에 제

한되던 분야의 외국인 출자비율을 최대 100%까지 확대하는 투자 유인책을 마련했지만, 정작 업계에서는 여전히 인도네시아 정부는 보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토로했다.

인도네시아 노동부는 기업들로 하여금 인도네시아 직원들을 더 많이 채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외국 인력에 대한 노동 허가 과정은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다.

한편 석유·가스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 인력은 55세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눈에 띈다. 55세 이상의 인력은 질병에 걸리기 쉬워 덜 생산적일 것이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물론, 직급이 대표(executives)거나 특정 분야의 전문가인 경우라면 예외가 될 수 있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외국 인력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점도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지난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 인력들을 대상으로 인도네시아 어학 시험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철회했으며, 외국 인력 1명을 채용할 시 인도네시아인 직원 10명을 채용하는 이른바 '1:10' 규정도 도입하려다 업계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고급 주택 '임대주를 찾습니다'

외국인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남부 자카르타 꼬망(Kemang) 지역에서 '임대합니다' 간판을 찾기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부동산 중개업자 줄리자르는 말한다.

그는 꼬망에서 정원과 수영장이 있는 주택 한 채의 임대료는 3분이 1가량 하락한 월 3,000달러 수준이라고 전했다. "6개월 동안 주택 매물을 팔려고 부단히 애를 썼지만, 임대하겠다는 사람이 없었다"고 줄리자르는 토로했다.

인도네시아 부동산 트렌드는?

루마123으로 보는 인니 부동산 수요 트렌드, 지역별로는 땅으랑, 유형별로는 방 3개 주택 가장 인기

인도네시아 부동산정보기업인 루마(Rumah) 123이 자사의 부동산검색사이트를 유저들의 검색, 실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방 3개짜리 주택의 인기가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루마123(Rumah123)의 이그나시우스 운퐁 총괄 매니저는 23일 "올해 부동산 판매 성장이 4.87% 가량 될 것으로 전망한다. 루마123 사이트에서 올해 1분기 부동산 검색량은 전년 동기대비 66% 늘었으며, 실제 거래량은 9%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루마123의 올해 1분기 거래건수는 1만 4,064건으로 전년(1만 2,900건) 대비 9% 늘었다. 지난해 4분기(1만 763건) 대비로는 31%나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땅으랑과 남부자카르타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땅으랑 지역의 매매 건수는 3,977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보데따백 이외 지역에서는 반동이 1,213건으로 많았다.

루마123 사이트에서 올 1분기 새로운 매물 정보 업로드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한 16만 2,861건으로 검색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 주택, 아파트, 루꼬(상가주택), 토지 가운데 일반 주택 검색이 가장 많았다.

올 1분기 부동산 검색 매물 가격은 수도권 자보데따백(자카르타, 보고르, 데벡, 땅으랑, 브카시)의 경우 5억 루피아~10억 루피아대가 가장 많았다. 자보데따백 외 지역에서는 2억~5억 루피아대 검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장관 “무비자 입국 남용하는 외국인 노동자들…”

외국 인력에 대한 인도네시아 노동부의 감시가 강화된다.

하니프 다끼리 노동부 장관은 무비자 입국 규정이 시행된 뒤 여행객인양 자국에 입국해 노동 허가를 받지 않고 일하는 ‘불법 노동자’ 들을 단속할 방침을 발표했다.

24일 하니프 노동부 장관은 “이민국과 협력해 블루-칼라 노동자들의 입국을 단속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비자 입국 정책이 확대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비교적 쉽게 자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하니프 장관은 지난 4월 동부 자카르타에 소재한 할림(Halim) 공군 공항에서 중국인 노동자 다섯 명이 여행자 비자로 입국했다가 노동 행위를 해 체포된 일을 언급하면서 외노자들이 여행자 비

자를 오용하는 일은 비밀비재하다고 말했다. 당시 체포된 중국인 인력들은 자카르타-반둥 고속철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이들로 밝혀졌다.

한편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부터 무비자 정책을 확대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꺾이고 있다. 위 정책으로 인해 총 169개국의 국민은 별도의 사증 없이 30일간 인도네시아를 여행할 수 있다.

무비자 입국 정책이 시행된 뒤 대략 60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도네시아는 올 연말까지 관광객 2,000만 명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인니 최악의 테러범 “산토소” 4년여 만에 결국 사살

인도네시아 최악의 테러범으로 꼽히는 ‘동인도네시아 무자헤딘’(MIT)의 우두머리 산토소(40)가 군경과 총격전을 벌이다 사살된 것으로 확인됐다.

띠또 까르나비안 인도네시아 경찰청장은 19일 대통령 궁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사살된 조직원의 시신이 산토소인지 여부를 거듭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신이 산토소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확인했으며, 산토소의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그의 시신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고 밝혔다.

이어서 경찰청장은 “경찰은 현재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그의 인상착의 등으로 보았을 때 90% 산토소가 맞다” 고 주장했다. 동일 국영 안파라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군경은 전날 오후 5시께 중부 술라웨시 뻬소 지역의 한 마을에서 MIT 소속 남녀 조직원 5명을 발견했다.

이후 인도네시아 군경은 MIT 조직원들과 30여 분간 총격전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남성 조직원 2명이 사살됐다.

경찰은 사살된 MIT 조직원 중 한 명이 수니파 극단주의 단체 ‘이슬람국가’(IS)에 대한 충성을 선언하고 경찰 등을 겨냥한 테러를 저질러 온 MIT 지도자 산토소일 가능성이 크다고 앞서 밝힌 바 있다.

띠또 경찰청장은 “이마의 반점과 장발, 긴 수염 등 산토소의 인상착의와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고 언급했다.

이슬람 무장단체인 MIT는 이슬람교와 기독교 간 갈등 지역인 술라웨시에서 2010년 결성됐으며, 2012년 8월 테러 수사관 2명을 고문 살해하고 경찰초소를 폭파하는 등 주로 경찰 상대 테러를 저질러 왔다.





[제1회] 통일 골든벨 @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세계 선진 시민육성 프로그램! 세계 청소년과 함께 풀어보는 퀴즈 한아당의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퀴즈를 통해 자연스럽게 정립되는 올바른 세계관과 통일관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 ▶ 일시: 2016년 8월 17일(수), 오전 10:30 ~ 12:30
- ▶ 장소: 롯데쇼핑 에비뉴 4층, 아이스펠리스 홀
- ▶ 대상: 한인 및 외국인 학생 중등부(7학년~9학년) 및 고등부(10학년~12학년) **선착순 50팀**
- ▶ 주제: **평화통일과 세계평화**
- ▶ 형식: 한국인+외국인으로 구성된 2인1조 팀 퀴즈대결
- ▶ 출제: 시사/통일/문화/역사로 분류된 문제집(한글+영문) 사전배포
- ▶ 진행: 한국어 및 영어 사용
- ▶ 시상:

시상내역	대상	수상
▪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상	최종생존 1팀	상장, 트로피, 세계 통일골든벨 대회출전지원, 장학금 1천만 루피아
▪ 민주평등동남아남부 회장상	중등부, 고등부 각 1팀	상장, 장학금 5백만 루피아/팀
▪ 코원 회장상	중등부, 고등부 각 1팀	상장, 장학금 5백만 루피아/팀
▪ 민주평등 아세안 부의장상	중등부, 고등부 각 1팀	상장, 장학금 4백만 루피아/팀
▪ 재인니 한인회장상	중등부, 고등부 각 1팀	상장, 장학금 4백만 루피아/팀
▪ 참가상	골든벨 퀴즈 진출 전원	참가증서, 기념품

- ▶ 신청+문의: 이메일 mipyonatong@gmail.com, 신청시 재학중인 학교, 학년, 성명, 연락처(핸드폰번호) 필수입력
- ▶ 신청마감: 2016년 8월 7일(일)

주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남아남부협의회 코원 인도네시아지부
 후원 | 재인도네시아 대한민국의사관, 재인도네시아한인회



신간안내

잘못된 주식투자 습관을 버리고, 절대로 지지 않는 투자법을 체득하다!



저자는 자신이 느긋한 투자 방식에 눈을 뜬 것은 종합상사에서 일한 경험 때문이라고 말한다. 업무를 익히면서 해외 거래선들은 술수가 뛰어나고 계산이 빠른 여우들이었다. 처음에는 자신도 그렇게 행동했지만 문득 자기에게 어울리지 않는 웃음을 깨닫고 곰이 되기로 결심한다. 그는 영업을 할 때처럼 주식투자도 곰처럼 하기로 마음먹는다. 단기적인 상황이나 소문 대신 재무제표와 아이템, 즉 기업 자체의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종목을 선정했다.

책은 불곰이 제자인 박선목에게 주식투자의 노하우를 강의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전형적으로 망하는 길을 똑같이 답습하는 '실패하는 투자자'들의 패턴을 고발하면서 사람들이 흔히 빠져들곤 하는 나쁜 습관들을 하나하나 지적한다. 이러한 잘못된 습관을 벗은 뒤 주식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재무제표 읽는 법을 소개한다. 그런 뒤, '불곰의 가치투자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 불곰주식연구소 추천 종목 15개의 실제 투자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며 함께 분석해 본다.

저자 : 박선목

저자 박선목은 불곰의 제자이자 이 책의 필자. 시인. 인도네시아에서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 고려대학교 국제학부를 졸업했다. 시 쓰기를 좋아해서 2011년 계간 『예술가』를 통해 등단하여 활동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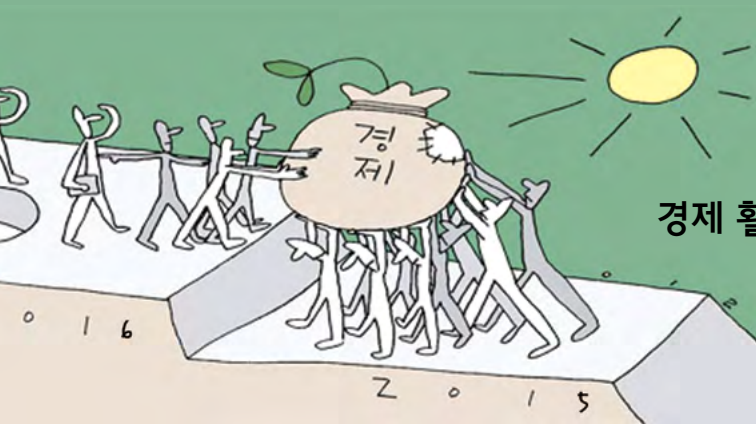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경제정책발표	관련분야	주요내용
제 1호 2015. 9. 9	산업경쟁력강화규제완화 행정효율화 전략분야경쟁력강화 물류효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134개 규정 개정. 특정 임업 제품, 화장품,팜유, 설탕, 섬유제품 등 무역절차 간소화, 비자 규제 완화, 수자원 관리 토지 수용 가속화 외국인 거주부동산 소유 허가 보세 물류센터 설치
제 2호 2015. 9. 30	투자촉진책 전략분야경쟁력강화 금융안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 허가 간소화 (대형 투자3시간 허가제) 선박,철도, 항공기 및 부품 수입 VAT 면제 수출대금에 대한 금리 경감
제 3호 2015. 10. 7	산업경쟁력강화 중소기업육성책 행정효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석유 연료 가격 인하 국민기업대출(KUR) 금리 인하(22% 에서 12%) 토지개발인허가수속(사업인가 200ha 이하)90일에서 20일
제 4호 2015. 10. 15	임금제도개정 중소기업육성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저임금 산정 기준 변경, THR지급 규정 개정 국민기업대출(KUR) 지원 대상 확대
제 5호 2015. 10. 22	기업업적개선및 활성화 부동산,인프라투자활성화 이슬람금융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정자산 재평가에 따른 세우대 규정제정 부동산투자신탁(REIT) 이중 과세 철폐 이슬람 금융상품 허가 간소화 및 취급 지점 인허가 간소화
제 6 호 2015. 11. 5	투자촉진책 행정효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특구 진출 기업에대한 세우대정책 식품, 약품 수입 인허가 온라인화 , 음료수 공급원활화
제 7 호 2015. 12. 4	기업업적개선및 활성화 개인소비활성화 전략분야경쟁력강화 중소기업육성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동집약산업(종업원5,000명이상),수출형 (50%이상) 기업의 개인소득세 50% 경감 (2년간) 특정 업종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 철폐 노점상 건축권부여 (5년간)
제 8 호 2015. 12. 21	전략분야경쟁력강화 행정효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 정유소 건설지원, 항공정비사 수입부품 관세면제 국토개발 효율화 위한 지도 작성 기준 통일
제 9호 2016. 1. 27	인프라개선 물류효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력인프라사업 가속 통관서류전산화
제 10호 2016. 2. 11	투자촉진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네가티브리스트개정 . 55개 분야 외자투자확대 20개 분야 외자투자100% 허가
제 11 호 2016. 3. 29	전략분야경쟁력강화 부동산투자신탁(REIT)감세 물류효율화 행정효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동산취득세 5%에서 1%, capital gain 과세 5% 에서 4.5% 의약품,건강기구업체 수입관세 감면 컨테이너 항만 처리 기간 단축 (2017년말목표 3.0일 / 현재 4.7일) 18개 정부 부처간 리스크 관리 통일화
제 12 호 2016. 4. 28	행정효율화 (창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창업지원 절차 간소화 및 비용절감 (현행 인허가94 절차 49로), 세금 납부 온 라인화
제 13호 미정	투자촉진, 서민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100만호 주택건설 5개년계획의 일환)

영문판 경제 정책 전문 (1-12호) Bank Indonesia (www. Bi.go.id) 에 수록

경제 활성화 정책 (1-12호) 효과 검증



조코위도도 정권이 발족한 지 2년이 다가오고 있다.

취임이래 인도네시아의 경제 침체는 지속되고 있고 부분 개각을 통한 새로운 바람을 기대하였으나 지지율이 오히려 하락하는 등 정치, 경제는 여전히 국민의 기대 이하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2015년 9월부터 경제, 투자 활성을 위한 각종 경제활성화 정책(Economic Stimulus Packages of Indonesian Government) 을 의욕적으로 발표하며 경기부양을 기대하고 있다.

그간 발표된 1-12호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그 효과를 검증한 보고서를 입수 소개한다.

첫째, 조코위 대통령이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은 [행정개혁을 통한 투자촉진]과 [비용절감]이다. 조코위는 카르타주지사 재임 중에도 단호한 행정개혁을 실시하며 대중의 인기를 모아 대통령까지 오른 인물이다.

정책 1호는 134개 규정 개정과 폐지를 실시하였고 임업 및 섬유제품 등에 대하여 무역간소화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국내 각종 대형 프로젝트 시행에 있어 토지수용에 따른 문제점으로 주요 공사가 장기 중단되는 예가 끊이지 않아 제 1호와 3호에 [토지수용수속 간소화] 정책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제 2호에 [대형투자 3시간 허가제]를 발표하였는데, 그 대상이 1,000명이상 고용과 1,000억루피아 이상 투자 사업에 한하고 있어 수혜 업체는 한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국가 전략사업 선명화로, 같은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적극 지원책을 발표하였다. 특히 부동산개발 지원책으로 제 1호에 [국내거주 외국인 부동산 보유(사용권) 자유화] 그리고 제 5호에 [부동산 투자신탁(REIT)에 대한 2중과세 폐지]와 제 11호에 동사업에 대한 세 우대정책을 발표하여 향후 REIT를 통한 부동산투자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전략사업지원책으로 제 2호에 [선박,철도, 항공기 및 동 부품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와 제 11호에 [의약품, 건강기구 관세 면제 및 세우대] 정책을 발표하였다.

셋째, 외국인투자 촉진책으로, 2014년도 미화기준 외국투자가 극히 저조하였고 2015년도에도 2.6% 증가에 그쳤는데 이는 2014년 발표된 네가티브리스트에 판매 및 창고업에 대한 외자 규제 강화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 되었음을 감안하여, 이의 타개책으로 제 10호에 [네가티브리스트 대폭 완화]를 발표하였다.

넷째,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정비로, 정부는 [발전소, 송전설비, 고속철도,철도, 항만설비,관개시설,통신설비] 등 30여개 우선 지원사업을 선정하고 이의 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제 9호에 [전력인프라 사업 가속화]를 발표하였다.

또한 인도네시아 국내총생산(GDP)에서 물류부문이 점하는 비율이27%로 주변국가(싱가폴 8%)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짐을 감안하여 제 1호에 [보세물류센터설립] 제 9호에 [통관서류 전자화] 제 11호에는 [컨테이너 항만 처리 기간 단축]정책 등을 발표하였다.

끝으로, 중소기업육성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제 3호에 [중소기업지원 국민기업대출(KUR)금리인하] 검토와 제 11호에 [수출형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를 지시하는 등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 지원 자세를 보여주었다.

이 외에도 정부는 법인세(현행 25%) 인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해외 도피 자금의 국내 환류 법안은 이미 국회를 통과하였다. 정부의 정책 발표는 관련 부처간 심의를 거쳐 입법화 되기까지 통상 6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그 효과가 경제에 나타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은 국내외 투자자의 많은 관심과 경제에 심리적 안정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위의 정책들은 향후 인도네시아의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됨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회화의 규범으로 부터 이탈해 매체 다변화를 이룬 작가 김기수



MOON 60x60 each Mixed Media on Stainless Mirror & Steel 2016

작가의 작품에는 작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담겨있다.

현대 미술은 특히나 그러하며 작가 및 작품 배경에 대한 이해없이 그 작품과 온전히 교감하는 것은 그다지 쉬운 것은 아니다.

독특한 발상이 느껴지는 김기수 작가의 작품을 (작가의 의도에 대한) 부연 설명 전의 시각과 설명 후의 시각으로 모두 감상해 보고 그 차이를 느껴보시기 바라며 또한 그로 인해 독자들이 현대 미술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는데 도움이 된다면 필자는 더 바랄 나위 없을 것이다.

김기수 작가의 작품을 보면 같은 소재가 일관적으로 들어간다. 스테인레스스틸(SST) 미러, 철의 부식 그리고 묶여진 하얀 천...

작가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존재에 관한 것이었다. 거울을 통해 보이는 작가의 모습... 그 존재감이 매우 낮설고 부담스럽게 다가와 화면에 흰천을 덮어 존재감을 약화시키기위해 작업을 했다. 그것이 관객의 눈에 보이는 묶여진 하얀천의 형상이다. 작가는 존재감이라는 테마로 꾸준히 캔버스에 작업하다가 좀더 이상적인 재료를 찾기 시작했다. 캔버스에서 거울로 거울에서 스테인레스스틸(SST)으로 재료를 바꾸어가면서.

“내가 처음 거울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던 것은 심각하고 진지했던 시기에 가진 억압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었다. 그래서 발이나 손을 흰천으로 묶고 다시 결박하는 모습을 그렸는데 그것은 지켜지기 어려운 질서나 약속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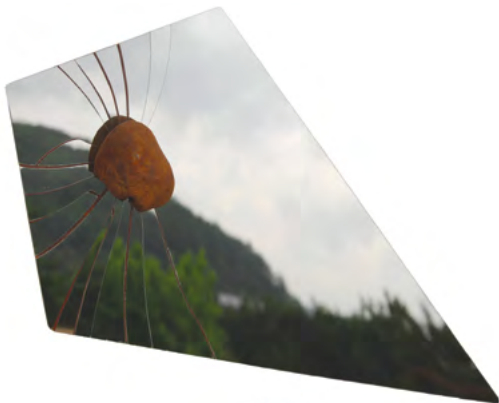
그러다가 깨지기 쉬운 거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선택했던 재료가 스테인레스 미러다.

재료가 바뀌면서 그동안 생각했던 내용도 바뀌었다. 견고하고 차가운 느낌의 미러 판에 그림을 그리는 일은 쉽지가 않았다. 그래서 거울에 시도했던 주제를 조금씩 다르게 그리기 시작했다.

사람과 함께 표현되었던 천과 억압을 상징하는 요소는 버리고 점차 흰 천만을 표현하게 되었다.”

-작가 노트-

작가의 작품에 등장하는 SST 미러는 망치로 두들겨 패이거나 돌에 맞아 깨진 듯한 형상으로 표현되는 데 이는 작가가 어릴적 창문을 통해 동경하던 달과 바다, 섬 등이 형상화 된 것 이기도 하다. 거울은 호수나 바다의 피사체이며 망치로 두들겨 들어간 둥근 패임이나 돌은 달을 형상화 한 것이다. 그리고 거울의 변형된 형상이나 돌을 던져 깨진 듯한 형상은 달빛으로 인해 일렁이는 물결의 형상이기도 한 것이다.



MOON 50X82 Mixed Media on Stainless Mirror, Steel, Wood, Stone 2015



MOON 130X117 Mixed Media on Stainless Mirror & Steel

철의 부식은 예술가의 행위를 붓질의 흔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철의 부식은 붓질을 디지털 정보로 전환 하고 그것을 정교한 컴퓨터 커팅으로 잘라낸 후 일일이 맞추는 작업을 거쳐서 표현된 것이다.

한 편, 작품 재질의 특성상 작품이 비치되는 장소의 배경이 작품에 비춰 나타나게 되는 데 이 또한 작가가 의도한 작품의 일부이기도 하다. 언제 어떤 장소에 전시되건 미러에 투영되는 배경 또는 관객의 모습을 작가가 의도한 프레임을 통해 비추어 지게끔 의도한 것이다.

작가가 의도 하는것은 관찰자로 하여금 거울에 반영되는 자신의 모습을 재발견 하는 일이다. 매끈한 거울이 아닌, 작가의 붓질 흔적의 녹슨 철판을 새겨 넣은, 혹은 망치로 두드려 표면을 일그러트린 거울 너머로 실제 존재와 반영의 불완전한 상관 관계를 비판적 시각으로 재검토 하기를 의도한다.

가려진 존재, 숨겨진 진실의 네러티브 (Narrative) 를 구사해온 김기수의 작품 앞에서 차분하게 자신을 응시하며 그 너머에 자신을 들여다 볼 일이다.

작품을 눈으로 읽는것을 너머 마음으로 읽게되는 작품... 차가운 성질 이면에 따스함이 스며든다...

글: 최미선 (한인미협회원)

천연기념물 동굴에서 더위를 식히자

가늠할 수 없는 자연의 신비로움에 대해 다시금 감탄하게 되는 순간.
바로 미지의 세계와도 같은 동굴에 들어설 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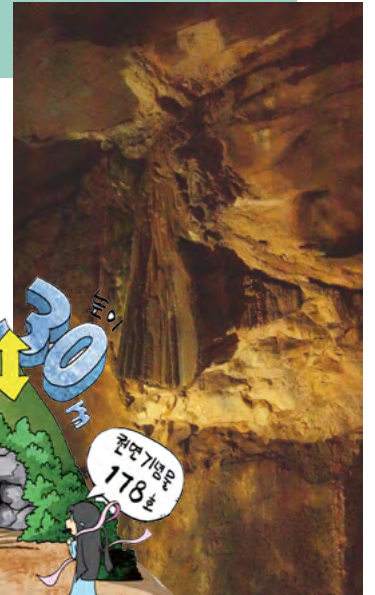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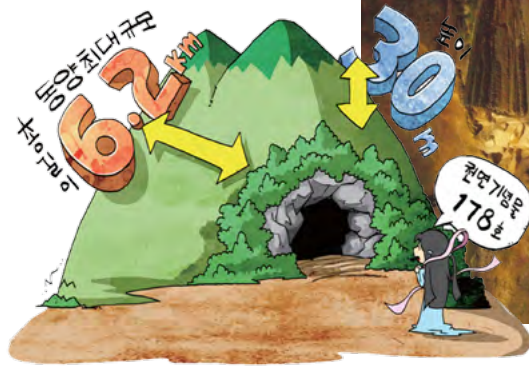
동양 최대규모의 석회암 동굴 천연기념물 제178호 삼척 대이리 동굴

두타산 부근에 위치한 삼척 대이리 동굴지대에는 현재 10개의 동굴이 발견됐으며 대표적으로는 대금굴, 관음굴, 환선굴이 있다.

이중 환선굴은 동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석회암 동굴로 총 길이 6.2km, 개방구간 1.6km, 내부 폭 최대 100m, 높이 최대 30m 정도로 웅장함을 갖췄다. 동굴 내부에는 미인상, 향아리 등 다양한 모양의 종류석, 석순, 석주가 발달되어 있다. 동굴의 생성에서 퇴화까지의 과정을 모두 살펴볼 수 있어 가족 단위로 동굴 탐험을 즐기기에 제격이다. 그 외에도 10여 개의 크고 작은 호수와 폭포가 있어 여러 볼거리를 즐길 수 있다. 환선장님좁딱정벌레 등 4종과 중앙광장의 옥좌대, 입구의 만리장성, 도깨비 방망이는 버섯형 중유폭포와 함께 세계 어느 동굴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환선굴만의 고유함이다.

환선굴이란 명칭에 따른 전설이 하나 있다. 대이리 촛대바위 근처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고 하자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여인은 간데 없고 천둥번개와 한 무더기의 바위만 굴러떨어졌다. 그 후로 물이 말라버린 것을 보고 이 여인을 선녀라 생각한 사람들은 마을의 평안을 위해 제를 올리기 시작했으며, 바위가 굴러떨어진 동굴에 환선굴이란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위치-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대이리 산25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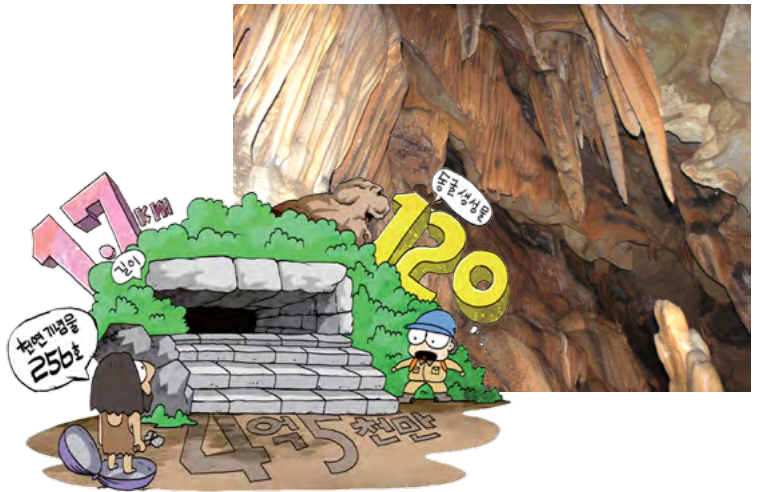
수억 년 전, 고생대의 석회암에서 시작 천연기념물 제256호 단양 고수 동굴

약 4억 5천만 년 동안 생성된 석회암 자연동굴인 단양 고수 동굴은 고생대의 석회암층에서 만들어져 학술적 가치가 크며 다양각색의 동굴 생성물을 만나볼 수 있는 보고(寶庫)로서 인정받아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총 면적은 60,198㎡, 길이는 1.7km에 달하며 지하수가 많이 흘러 들어와 여러 모양의 중유석과 석순이 발달했다. 이들이 모여 펼쳐내는 모습은 마치 화려한 궁전에 와있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단양 고수 동굴의 수호신이라 할 수

있는 사자바위뿐만 아니라 동굴 내부에는 문어바위, 독수리바위 등 120여 개의 다양한 생물체의 모양새를 살펴볼 수 있으며 폭포의 웅장함을 선보이는 종유석과 선녀탕은 신비로움을 배가시킨다. 이외

에도 거미류를 비롯한 노래기, 염주다슬기, 장님엽새우 등 약 25종의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는 살아있는 현장학습장이다.

위치-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고수리 산4-2 외



기암절벽 위, 체험방식형 천연동굴 천연기념물 제260호 평창 백룡동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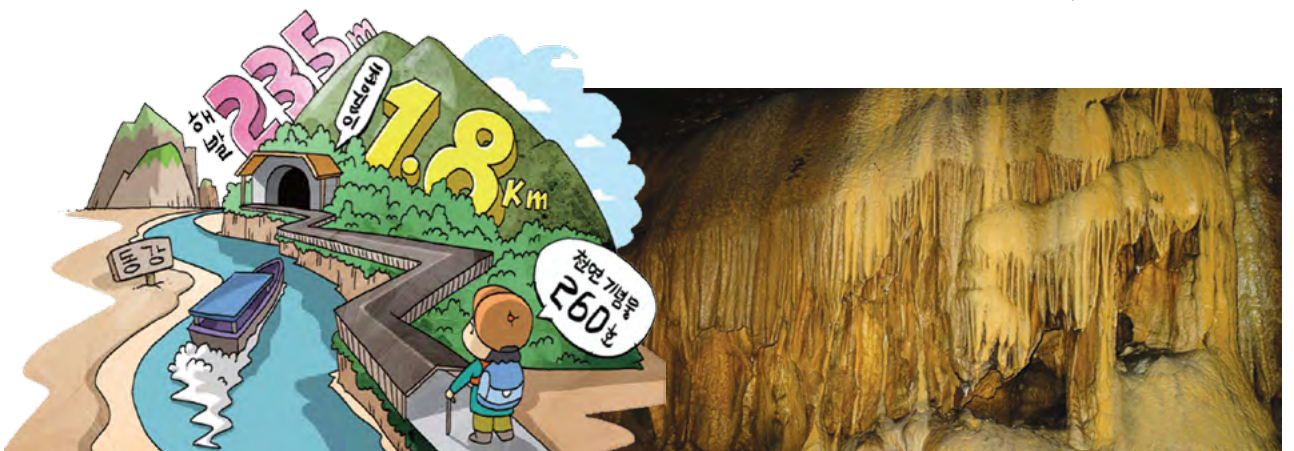
수려한 풍경을 자랑하는 동강 옆 백운산 기암 절벽에는 조명 등의 인공시설을 최소화한 체험방식형 평창 백룡동굴이 자리하고 있다. 다른 동굴에 들어갈 때보다 탐험복, 헬멧, 탐험화를 단단히 착용해야 하는 이유도 인공 시설이 적기 때문이다. 해발고도 235m에 위치해 있어 동굴의 입구가 수면 위로 약 10~15m 지점에 있는 것도 특징이다.

동굴을 찾아온 관광객들은 들어서기 전부터 거대한 기암절벽에 압도당한다.

총 길이 1.8km에 달하는 평창 백룡동굴 주변에는 마을 주민들이 생활했던 흔적들이 남아 있어 눈길을 끈다. 입구 부근에서 발견된 토기와 온돌, 아궁이가 이를 반증한다. 동굴 안으로 들어서면 종유관, 종유석, 석순, 석주뿐만 아니라 동굴산호, 동굴방패, 커튼 등 많은 동굴 생물체가 있어 다채로우며 특히, 샷갯 모양과 달걀프라이 모양의 석순을 마주하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호기심이 샘솟는다.

위치-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마하리 산1

정리/손은경, 일러스트/이근길





김 현 숙 / 시인, 한국문협 인니지부회원
cherub1005@gmail.com

작년 이맘 때, 오래 된 베란다의 정원에 낮선 얼굴이 나타났다.

하나, 둘, 셋, 넷...

정확히 네 개의 검붉은 얼굴이 긴장한 듯 부끄러이 웃고 있는 모습에 나는 잠시 어리둥절했다. 베란다 구석, 아이비 넝쿨과 울곧게 뻗은 산세베리아 틈에서 앙상한 몸을 잎사귀로 감싸고 얼굴을 쪽 내밀고 핀 영산홍 꽃, 얼굴을 내 밀었다기 보다는 까치발을 서고 있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 모르겠다. 이는 십여 년 전 주택에 살 때 현관 앞 작은 화단이 꽃 잔디 일색이 길래 그 덩 덩함을 메꿔 보려고 큰 맘 먹고 화원에서 데려 온 꽃이다. 청초함이 넘쳐 도도해 보이기까지 하던 꽃과 윤기가 자르르 흐르던 이파리에 반하여 다른 것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선택한 녀석이었다. 그리고 그 건 태어난 이래 처음으로 애정을 담아 심어 본 나무이기도 했다.

초등학교 시절, 해마다 열리던 식목일 행사에 아이들과 단체로 동원되어 심어봤던 나무들과는 다른 차원의 느낌이었으니 말이다. 작은 화분에 심어져 온실 속의 화초처럼 살던 나무가 넓은 화단에 뿌리를 내리느라 고단했을 텐데도 어느 한 군데 불편한 기색 없이 이 삼 년을 잘 자라 주었다. 게다가 영산홍만의 청초함을 변함없이 간직하면서 나의 입가에 만족스런 웃음을 던져주곤 했다. 그 이후로 우리가족이 주택을 떠나오던 날에 마지막으로 챙겨 나온 존재이기도 했다. 이삿짐이 모두 나가고 두고 가는 것이 없는지 집안 구석구석을 둘러본 다음 대문을 나서려 하자, 나를 두고는 한 발자국도 나설 수 없다는 듯 마당 저쪽에서 강렬히 잡아끌던 눈빛이었다. 그 강렬함에 이끌려 차마 내 핑개칠 수 없어 부랴부랴 뿌리 채 비닐봉지에 담아 옮겨온 영산홍이라고 이름 하는 꽃나무였다.

아파트로 이사 오자마자 화분에 옮겨지고 물만 몇 차례 얻어 마셨을 뿐인데도 영산홍은 다시 예전의 생기를 되찾고 잎사귀들은 반들거렸다. 화초가꾸기가 취미인 남편의 손에 자리가 주어지고 우리와 더불어 새로운 공간에서의 영산홍의 새 삶도 시작 되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사 온 그 이듬해 단 한 번 꽃 피운 것을 끝으로 더 이상 꽃은 피우지 않았다. 화초라기보다는 나무로만 묵묵히 십년을 살아 온 셈이다.

높은 베란다 담장에 비해 영산홍의 왜소한 크기는 환경 탓인지는 몰라도 그저 ‘꽃을 피워 봤던 나무’로 일찌감치 자리매김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남편이나 일하는 아이가 주는 물과 연례행사인 분갈이로 나이만 더 하며 늙어가는 존재로만 보여 졌다.

나도 영산홍이 ‘꽃을 피우는 나무’라는 인식조차 있고 내게 주어진 일상에 파묻혀 그 한계만큼만 바라보고 얻으며 주고받는 생활을 이어갔다. 내 삶속에 차지하는 자리는 더 이상 없었다. 베란다에서 자라는 화초 중에 가끔 노란 꽃을 연등처럼 매 단 달맞이꽃과 넝쿨지어 피는 보라색 나팔꽃에 이끌려 카메라를 들이대거나 커피 잔을 들고 그들 앞에서 서성거렸을지라도 그 영산홍 나무에 눈길이 머문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이미 나에게 그런 존재였던 나무가 십여 년이나 지난 어느 날, 갑자기 검붉은 네 송이의 꽃으로 나의 시선을 이끈 건 왜였을까?

영산홍의 낯선 얼굴을 보고 어리둥절한 느낌도 잠시, 몇 십년동안 소식도 모르던 단짝친구를 우연히 만난 것처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 반가움, 그간 신경 쓰지 않았던 미안함, 그리고 우연한 만남이 주는 놀라움이 마구 뒤섞여 혼란스러웠다.


내 눈에 들기 위해 십년을 기다린 순수한 아이 같은 존재, 꽃을 피우는 길만이 나의 시선과 관심과 애정을 되찾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을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물과 부족한 양분만으로 작달막한 키를 키우고 그것도 모자라 까치발로 베란다 담장위에 내리는 햇살을 훑치며 그 양분을 물

래 몰래 저장해 두었다가 한꺼번에 꽃을 피우는 일에 쓰지 않았을까? 이런 과정들이 고단해서였는지 아니면 고대하던 일을 이룬 순간에 그 동안 붙잡고 버티던 팽팽한 신경 줄을 놓아 버려 서였는지 영산홍의 꽃들은 일주일을 채 버티지 못하고 그 검붉은 탐스러움을 푹푹 뿜고 구르며 말았다.

송이 째 떨어진 꽃들은 정의와 대의를 위해 투쟁하다 목숨을 내 놓은 투사처럼 비장하고 안타깝기까지 했다.

그 안쓰러운 느낌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내 가슴을 푹푹 건드렸다. 영산홍의 그 길고도 쓴 인내에 보답해야 한다는 양심의 가책 같은 거였는지도 모른다. 나는 십년이나 변하지 않고 불박이처럼 자리해 있던 영산홍을 그 자리에서 슬그머니 햇빛 쪽으로 당겨 놓았다. 영산홍이 나에게 보여주었던 십년이 넘는 변함없는 애정에는 터무니없는 대가였지만 그 순간 내가 해 줄 수 있는 보답은 고작 그 정도였다. 그 이후로 영산홍은 나에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물음을 던지곤 한다. 나는 그 누구의 눈에 들기 위해 얼마나 노력해 왔고 무언가를 얻기 위해 얼마나 오랜 시간을 인내해 왔는가?

이타심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오직 내 자신을 위해 나의 목표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 삶을 살았는가? 한계에 부딪치는 상황이 오면 그 고통에 아파하고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 수많은 구실들을 찾으며 포기할 수밖에 없음을 스스로와 타협하라 얼마나 애쓰며 살았는지도 부끄러워졌다.

베란다 타일의 한쪽 반만큼 햇빛 쪽으로 옮겨진 영산홍은 키가 한 뼘쯤 더 자라고 올해도 작년 못지않은 꽃을 피우고 있다. 며칠 전 세 송이의 탐스런 꽃송이를 자랑하더니 지금은 두 개의 봉오리가 봉긋하게 올라 와 꽃 필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다. 영양실조로 굵게 자라지 못한 여전히 앙상한 다리를 하고 있지만 까치발을 서지 않아도 될 만큼 자란 키 덕분에 한결 여유 있어 보인다. 목표와 집념이 함께 이룬 영산홍이라는 꽃들 앞에 올해는 예전처럼 그저 눈요기나 하는 즐거움 대신 고난의 긴 시간을 견뎌냈을 인고의 시간에 감사하며 깊은 애정도 함께 나누어본다. 

인도네시아 민법(7)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centrin.net.id
YSM & PARTNERS

(전호에서 계속)

9.8. 한 물건에 복수 토지건물 저당권 설정 가능 여부

복수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 “예” 를 들면 시가 10억 루피아 토지에 1차로 Rp. 7억 저당권을 설정하고, 2차로 또 Rp. 3억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 법에서는 저당권 설정 회수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제한된 물건을 이용하여 Maximum 용자를 원할 수도 있겠지만 채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저당 물건 시가 이상으로 저당권 설정을 받고 돈을 빌려 주면 채권 회수 가능성은 그만큼 적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9.9. 복수 토지건물 저당권 설정 시 채무변제 순위

복수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매각하여 받은 대금이 9억 루피아 이라고 가정하면, 1순위 저당권자가 우선적으로 7억 루피아를 먼저 변제받게 되며, 2순위 저당권자는 9억 루피아에서 1순위자에게 지급하고 남은 2억 루피아만 변제 받게 된다.

9.10. 토지건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물건에 대하여 압류 가능 여부

대부분의 법률학자들은 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물건에 대하여 법원의 압류처분을 법의 원칙을 무시한 처사로 간주하고 압류에 대하여 동의하고 있지 않으나, 소송법상 원고의 신청에 근거하여 피고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현실적으로는 저당권 설정 여부에 구애 없이 압류 처분이 내려지고 있다. 저당권의 본질이 채무 우선 변제권이므로, 저당권자가 저당권



물건 매각 대금으로부터 소송 승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 받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지만, 저당권자의 권리만 보호하는 것이 법의 임무가 아니고 승소자의 권리도 보호해야 하는 것이 법의 임무일진데,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물건에 대하여 법원의 압류 처분은 사회 일반의 법정서에 부합한 조처로 생각된다. 저당권 물건의 매각 대금이 저당권 가액보다 더 많아서 저당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돈을 승소자 혹은 다른 채권자가 받을 수 있으며, 채무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상황이 되면, 저당권이 소멸되므로 승소자의 입장에서는 가압류 처분을 한 후에 상황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물건에 대한 법원의 가압류 처분은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필자의 의견이다.

9.11. 토지건물 저당권자 저당물건 소유 금지

9.11.1. 채무자가 채무를 약정한대로 변제하지 못한 경우일지라도 저당권자는 저당물건을 소유할 수 없으며, 저당 물건 처분은 공매를 원칙으로 하며, 법정사항을 충족하면 수의 매매를 인정하고 있다.

9.11.2.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 저당물건이 담보권자의 소유가 된다는 각서 혹은 위임장은 무효라고 저당권법 제12조는 규정하고 있다.

9.12. 공매 원칙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건물 처분은 공매를 원칙으로 한다. 저당권 보유자는 막 바로 저당물건 공매를 채무부 산하기관인 공매청 (Kantor Lelang Negara) 이나 민영 공매 회사에 공매를 의뢰하여 저당물건을 공매 할 수 있다. 재래식 경매 혹은 온라인 공매를 한다. 공매 대금이 저당권 가액보다 많으면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돈은 채무자에게 넘겨줘야 한다.

9.13. 수의 매각 가능

담보권 제공자와 담보권자 간에 합의가 있으면 담보권자는 담보물건을 공매 의뢰하지 않고 수의 매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최상의 값에 팔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므로 수의 매매는 나중에 담보권자로부터 피소를 당하지 않도록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

9.14. 매각 위임장

공매 혹은 수의 매각에서 오는 여러 가지의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을 빌려 줄 때에, 통상 채권자는 물건 매각 위임장을 채무자로부터 받고 있다. 저당권자의 입장에서 저당물건 매각에 소요되는 경비, 시간, 노력 및 매각 후 분쟁 발생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검토해보면 이 매각 위임장을 이용하는 방법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위임 사항에 관하여 피위임자가 위임자에게 법률상의 책임이 있으므로, 피위임자가 법정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위임자는 피위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9.15. 저당권 증서에 기재하는 내용

9.15.1. 저당권 제공자는 저당물건 임대

사항, 즉, 임대기간, 임대비 가액, 지급방법, 재임대 등 임대

9.15.2. 저당물건의 변경(증축, 개축 혹은 구조 변경)도 반드시 저당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9.15.3.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순위 저당권자가 저당물건 매각 권리를 갖는다.

9.15.4. 저당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저당물건을 제삼자에게 어떠한 형태로도 양도하지 않는다.

9.15.5. 저당물건에 대하여 보험금이 나올 때는 저당권자가 우선적으로 받는다.

9.15.6. 채무 변제 불이행으로 저당권자가 저당물건 매각 시, 저당권 설정자는 저당물건을 무조건 비워준다.

9.15.7. 기타 채권자의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

9.16. 저당권 말소 조건

9.16.1. 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이 실효된 경우. 저당권은 채권에 종속된 권리이기 때문에 모권인 채권이 실효되면 자권인 저당권도 실효된다.

9.16.2. 저당권을 보유한 채권자가 저당권을 내놓은 경우

9.16.3. 법원의 확정판결문으로 저당권이 실효된 경우

9.16.4.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건물에 대한 권리가 실효된 경우

9.17. 저당권 말소(Roya)

저당권 말소 사유가 발생하고, 저당권 보유자는 저당권 말소를 신청하려면, 채권이 전액 변제되었다는 내용의 변제확인서 혹은 저당권 보유자가 저당권을 릴리스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저당권 등기증서 원본과 함께 저당권등기증서 발급기관인 토지청에 신청해야 한다. 말소는 신청일로부터 약 2주 소요된다.

(다음 호에 계속)

[철학, 욕망을 마주하다] 가상공간을 통해 확장되는 욕망



2011년에는 인공지능 왓슨이 퀴즈쇼에 나가 인간을 꺾고 우승했다.

<출처: (cc) iChris at Flickr.com>

지난호에 이어

스마트폰 같은 모바일의 등장으로 즉시성에 대한 욕망이 커졌다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기다리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뒤죽박죽된 시공간에서 실시간으로 방송을 시청하고 문자나 사진, 동영상 등의 자료를 편집, 전송할 수 있다. 그리고 증강현실1), 위치기반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활정보와 교통, 날씨 정보를 받아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제와 가상이 결합되는 체험도 할 수 있다.

인공지능이 발달하여 앞으로는 앱을 통하지 않고도 음성이나 메신저만으로 전자기기를 제어하거나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즉시성에 대한 욕망은 점점 더 커질 것이다.

기록 욕망의 극대화와 공유를 향한 욕망

문자는 2천여 년 동안 인간의 기억을 보충하여 지식과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하는 도구였다. 그리하여 문자로 기록된 문서나 책이 문화를 보존하고

전송하는 역할을 해왔고 소통의 수단이 되기도 했다. 문서나 책은 곧 인간의 기록 욕망을 충족시켜 주는 미디어였다.

20세기 말부터 디지털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문서와 책은 뒤로 밀려나고 디지털 미디어가 그 역할을 떠맡았다. 문서나 책과 같은 미디어는 인간의 지적인 논리에 따라 데이터를 분류하고 저장하는 반면 디지털 미디어는 기계 시스템 자체의 논리에 따라 데이터를 분류하고 저장한다.

디지털 미디어로 방대한 양의 정보를 신속하게 저장하고 전송할 수 있게 되었다.

디지털 미디어는 문서나 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한 양의 정보를 신속하게 저장하고 전송할 수 있도록 한다. 결국 디지털 기술은 기록 욕망 또한 극대화한다.

디지털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저장기술은 플로피 디스크에서 하드 디스크를 거쳐 클라우드에 이르렀다. 디지털 기술이 클라우드 단계에 들어선 지금은, 서버나 데이터 센터를 통해 소비자들의 인터넷 방문기록, 검색기록, 구매기록, SNS 활동 기록, 통화기록 등이 몽땅 빅데이터로 저장된다.

이 데이터 센터와 빅데이터야말로 오늘날의 기록 욕망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것이다. 더 나아가 빅데이터의 분석은 소비자의 은밀한 취향까지도 파악할 수 있으므로 통제의 욕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계비용 제로 사회>에서 제레미 리프킨은 재생 에너지 기술과 디지털 기술의 융합이 성공하여 상품의 한계비용이 제로에 가까워질수록 정보와 서비스, 재화를 공유하려는 욕망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사례로서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는 피어 투 피어 네트워크, 프리 소프트웨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²⁾ 등을 들었다. 공유경제를 이루려는 욕망은 앞으로 우리가 키워나가야 할 바람직한 욕망이다.

인공지능은 인간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

IBM이 개발한 인공지능 딥블루는 1997년에 체스 세계 챔피언인 카스파로프를 꺾었고, 2011년에는 인공지능 왓슨이 미국의 유명 퀴즈쇼에 나가 인간을 꺾고 우승했다. 마침내 2016년에는 난공불락으로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문명비평가인 제레미 리프킨은 공유에 대한 욕망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 (cc) Heinrich Böll Stiftung at Wikimedia.org>

여겨졌던 바둑에서 인공지능 알파고가 초일류기사인 이세돌 9단을 이기는 놀라운 일을 해냈다. 세기의 바둑 시합이 한국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둑을 ‘동양의 지혜’로 간주해왔던 한국인들은 가장 큰 충격을 받았다.

알파고가 이긴 뒤에, 미래학자이자 구글의 기술이사인 커즈와일은 인공지능이 이제 매우 복잡한 패턴을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선언했다.³⁾ 그는 자신의 저서 <특이점이 온다(2005)>에서 이미 인공지능에 관한 몇 가지 예측을 했었다.

2029년에는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생각하고 느끼게 되며, 2045년에는 인간의 지능(패턴 인식 능력, 문제해결 능력, 감정 및 도덕적 지능을 포함한 지능)을 뛰어넘고 인간과 기계 사이의 융합이 이루어져 인간이 생물학적 한계를 넘어서는 특이점(singularity)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도 인공지능이 신문기사를 작성하고 소설을 쓰거나 그림도 그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의사나 변호사로 활동하기도 하는 단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가 제시한 년도가 신빙성이 없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아주 터무니없는 예측이라고 볼 수는 없다.



욕망은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만일 인공지능과 같은 디지털 기술이 커즈와일의 예측대로 발전한다면 인간의 욕망은 어떤 방향으로 될까? 그가 낙관한 대로 생물학적 한계를 벗어나 영적인 방향으로 나아갈까? 아니면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서 인류의 파멸을 초래할까?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잃어 마음과 욕망이 아예 황폐해지는 것은 아닐까?

이 문제는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지만 이대로 간다면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과학자들과 기업 경영자들처럼 자본주의의 역동성과 기술의 힘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지구적 자본주의의 폐해를 정확히 인식하고 기술의 위험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디지털 기술이 우리가 추구하는 자아를 인공지능에 심을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인공지능은 초지능(superintelligence)의 단

계에 들어서서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이기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인간보다 훨씬 똑똑한 인공지능이 인류를 지배하거나 파멸시키려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인공지능에 자아를 심을 수 있다면 맹자의 사단(四端)도 심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인공지능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 부끄러워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 사양하는 마음을 심는다면 인류는 기계와 공존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 같은 기술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자본가와 과학자의 욕망에 주로 달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욕망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 필요가 있다. 이 세상은 그들을 위해 존재하는 실험실이 결코 아니다.

[조홍길/부산대 강사]



복잡한 패턴을 인식하기 시작한 인공지능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자본가와 과학자의 욕망에 달려 있다.

이 표현이 맞나요 ?



글: 최서혜

“인도네시아어는 배우기 쉽다?”

인도네시아어를 적어도 10년 이상 접한 전공자로서 인도네시아어를 잘하는 사람과 그냥 하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 고민해봤다. 인도네시아어를 모국어로 쓰거나 부모 중 한 사람이 인도네시아인이 아니라면 제 2 외국어로 인도네시아어를 구사하는 사람에게 ‘실력이 있다? 없다?’를 구분 짓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지만 간과하기 쉬운 생활문법과 적재적소에 맞는 뉘앙스를 지닌 어휘구사력이 아닐까. 알면 알수록 어려운 것이 바로 인도네시아어다.

본 기획은 지난 2001년 8월 본지에 인기리에 연재된 ‘알쏭달쏭 인니어’를 재구성한 것으로 생활 속 틀리기 쉬운 인도네시아어 및 쓰임이 많은 ‘생존 인도네시아어’를 다양한 예시 상황을 통해 독자들과 짚어보고자 한다.

1. Saja: 단지, ~만, ~뿐, ~조차도

#상황 1: 유명한 ‘포켓몬GO’ 게임을 하던 A씨. 포켓몬에서도 가장 유명한 몬스터인 피카츄를 잡고 싶었다.

A: “**Aku mau menangkap Pikachu**(나 피카츄 잡고 싶어)”

B: “**Mau mendapatkan Pikachu? Datang saja ke Senayan!**
(피카츄 잡고 싶니? 스나얀으로 가봐!)”

#상황 2: 친구와 쇼핑몰에 간 A씨. ‘1+1’ 세일이라고 쓰여진 신발 가게에 들어간다. 어떤 게 세일 품목인지 아이쇼핑을 하는데 눈치 없는 점원이 말을 건넨다.

B: “**Boleh saya bantu?**(제가 도와드릴까요?)”

A: “**Saya mau lihat-lihat dulu**(구경 먼저 할게요).

Apa ada warna yang lain sepatu ini?(이 신발 다른 색도 있나요?)”

B: “**Maaf. Sepatu ini warnanya hanya ini saja.**
(죄송합니다. 이 신발은 이 색깔밖에 없어요)”

#상황 3: 출근 후 보스에게 불려간 A씨. 보스가 미간을 찌푸리며 날카롭게 질문한다.

B: “**Laporannya apa cuma ini saja?**
(보고할 것이 이것 뿐인가요?)”

#상황 4: 연인과 데이트를 즐기던 A씨. 남자친구에게 기념일 선물을 기대했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A : **“Kamu lupa hari jadi kita ya?”** (너 우리 기념일 잊어버렸지?)

B : **“Maaf. Aku lupa gara-gara sibuk banget sama kerjaan”**
(미안해. 일이 너무 바빠서 까먹었어)

A : **“kamu selalu janji-janji saja sama saya”** (넌 맨날 말 뿐이야)

B : **“Aku beliin kado nanti saja”** (내가 나중에 선물 사줄게)

A : **“Terserah kamu saja”** (니 맘대로 해)

#상황 5 : 어디에 있든! 언제든! 누구라도! 아무거나!

Di mana saja! Kapan saja! Siapa saja! Apa saja!

◇Saja는 단지, 오직, ~뿐 (hanya, Cuma), ~(어떤 것/누구/어디/언제)라도의 의미를 지닌다. 일상에서는 Saja를 aja로 줄여쓰기도 한다. Saja의 비표준적 표현으로는 doang이 있다.

때로는 Nanti saja!(나중에 하지!), Cuman ini doang(이것 뿐이야)와 같이 강조어로 쓰이기도 한다.

2. Makan Waktu? 시간을 먹는다고요?

Makan Waktu는 ‘시간이 걸리다(takes time)’ 라는 의미다. 그럼 ‘시간을 때우다?(killing time)’ 의 인도네시아어 표현은 뭘까? 바로 Mengisi waktu(mengisi = 채우다, 담다)이다.

다음 예시와 함께 시간에 대한 표현을 짚어보자.

#상황 1: A씨가 사무실에서 대사관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동료B에게 묻는다.

A: **Dari kantor, sampai kedutaan besar makan waktu berapa menit, ya?**(사무실에서 대사관까지 얼마나 걸려?)

B: **Kira-kira 30 menit kalau ga macet di jalan.**(안 막히면 대략 30분 걸려)

*makan waktu: 시간이 걸리다.

#상황 2 : A씨가 공항에 일찍 가겠다는 친구B에게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낼 것이냐고 묻는다.

A : **Di bandara mengisi waktu dengan apa?** (공항가서 뭐하면서 시간 보낼거야?)

B : **Saya mau mengisi waktu dengan main HP.** (핸드폰 갖고 놀면서 시간 때우지)

*mengisi waktu: 시간을 보내다/때우다.

#상황 3: 이런 저런 업무에 너무 바쁜 A씨. 오후에 계획에 없던 미팅까지 잡혔다.

A : **Setiap hari ada meeting. Tapi tidak ada hasilnya jadi buang waktu aja.**

(매일 회의는 있는데 결과는 없으니 시간만 버리는 셈이야) *buang waktu: 시간을 허비하다.

#상황 4: 인터넷에서 맘에 드는 가구를 발견한 A씨. 송금하려고 ATM에 가겠다고 하자 친구B가 하는 말.

B: **Mengirim uang melalui internet banking lebih menghemat waktu.**

(인터넷으로 송금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hemat waktu: 시간을 아끼다.

아하! 알쏭달쏭 표현 제대로 알기

-Orang besar와 Orang yang besar의 차이를 아시나요?

어떤 뚱뚱한 사람이 차를 타고 가는 데, 자리가 좁아 앞 좌석에 다리를 걸쳐놓으며 운전기사에게 양해를 구하기 위해 “Saya orang besar” 라고 했다. 그 말을 들은 기사는 매우 불쾌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왜 그랬을까?

Orang Besar는 거물이나 상당히 높은 직위의 인물을 뜻하는 말이다. 예를 들어, Bintang Besar는 큰 스타, 즉 톱스타를 일컫는 단어다. ‘등치가 큰 사람’이라는 표현은 ‘orang yang besar’라고 했어야 맞다. “내가 좀 잘나가는 사람이야”라며 거들먹거리는 소리로 들렸을 테니 기사가 기분이 나빴을 수 밖에. 인도네시아에서 앞 좌석에 다리를 올려놓는 것은 큰 실례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

-Bebas rokok과 Bebas merokok이 전혀 다른 의미?

결론부터 말하면 Bebas rokok은 ‘금연’을 뜻하고, Bebas merokok은 ‘자유로운 흡연’이라는 의미로 정반대의 말이다. Bebas는 자유, 해방이라는 의미의 형용사다. Rokok은 담배를 뜻하고, 동사를 만드는 접두사 me-가 붙어 merokok이 되면 담배를 피우다는 동사가 된다.

사실 이 두 단어는 인도네시아인들도 헷갈려 하며 혼용해 쓰는 경우가 많다. 헷갈리지 않으려면 이것만 기억하자.

Bebas와 명사가 만나면 금지, Bebas와 동사가 만나면 허용!

Bebas + Rokok(담배라는 명사) → 담배를 금한다. 즉, 금연. (=Dilarang merokok)

Bebas + Merokok(담배를 피우다는 동사) → 흡연을 허용.

- Di area ini kawasan bebas rokok. (이 곳은 금연구역입니다)

- Apakah di gedung ini ada area bebas merokok? (이 건물에는 흡연구역이 있나요?)

비슷한 예를 들어보면, Bebas Cukai(세금 면제), Bebas Banjir(홍수로부터 안전한), Bebas Becak(베짜이 없는), Bebas Malaria(말라리아로부터 안전한) 등이 있다. 모두 bebas 뒤에 있는 명사로부터 ‘해방된, 안전한, 분리된’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그렇다면 Bebas Parkir를 살펴볼까. Bebas에 ‘주차하다’는 의미의 Parkir라는 동사가 붙었다. 그렇다면 ‘주차를 허용한다’는 의미가 된다. 주차를 금지한다는 의미로 쓰려면 Dilarang parkir로 써야 맞다.



INDONESIA
BEBAS
ROKOK

WE MAKE A MOVE. WE MAKE CHANGES.
AND YOU ARE PART OF US.

www.indonesiabebasrokok.org

t f You Tube BebasRokokID

인도네시아 금연 캠페인
Indonesia Bebas Rokok

여기는 어디?

말라카 해협 Strait of Malacca



위치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과 동남아시아 말레이반도 남부 사이

면적 65,000km²

대륙 아시아

국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규모 길이 800km

요약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과 서말레이시아-타이 반도를 사이에 두고 뻗어 있다. 면적 6만 5,000 km², 길이 800km이다.

인도와 중국 사이를 이어주는 가장 짧은 해로이며 세계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은 선박항로 중 하나이다.

아랍인의 통치를 받다가 포르투갈인에게 넘어갔으며 1641년에는 네덜란드에게, 이어 영국에게 넘어가는 등 여러 나라의 지배를 받았다. 수세기 동안 해적들의 끊임없는 위협이 있었으나, 영국-네덜란드 연합군이 1860년 해적들을 완전히 소탕했다.

순다 대륙붕에 속하는 말라카 해협 양쪽에는 해안 늪지대가 많다. 수심이 얇은 바다는 산소로 과포화상태이다.

말라카 해협은 여러 형태의 선박들이 다니는 수로로서의 역할 외에도 중동의 유전과 동아시아의 여러 항구 사이를 항해하는 유조선들의 통로이기도 하다.

말라카해협 (Strait of Malacca)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서쪽)과 서말레이시아-타이 반도(동쪽)를 사이에 두고 북위 1~6°에 걸쳐 뻗어 있다. 인도양과 남중국해를 연결하며 폭은 북쪽의 249km에서 남쪽의 64km에 이르기까지 편차가 크다.

말라카라는 이름은 16~17세기 말레이 해안에 있던 중요한 무역항 말라카에서 유래했다. 인도와 중국 사이를 이어주는 가장 짧은 해로로서 때때

로 ‘straits’ 라고 애매하게 일컬어지기도 한다. 세계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은 선박항로 중의 하나로서 옛날 아시아인의 민족대이동 당시 말레이 제도로 통하는 통로로 이용되었고 AD 2세기 파타나가 가까이 있는 말레이 반도 해안은 인도화된 무역왕국 란카수카의 근거지가 되기도 했다.

그후 아랍인들의 통치를 받다가 무역항 말라카에 기지를 설치한 포르투갈인들에게 넘어갔으며 1641년에는 포르투갈에게서 말라카를 빼앗은 네덜란드에게, 이어 영국인들에게 넘어가는 등 여러 나라에 지배권이 넘어갔다. 영국인들은 해협 북쪽 관문에 있는 피낭 섬을 차지하고 그후 1819년 남쪽의 싱가포르를 손에 넣었다.

1826년 영국은 몇몇 지역들을 더 확보해서 해협식민지를 창설한 후 이곳을 동양에서의 아편 거래를 보호하기 위한 관할구역으로 삼았다. 백백한 홍수림으로 둘러싸인 늪지대에서는 수세기 동안 해적들이 숨어 살면서 선회포(旋回砲)로 무장한 10t 정도의 소형선박들을 이용하여 상선들을 끊임없이 위협했으나, 1837년 처음으로 유럽 무장 증기선이 동남아시아에 들어오면서 영국-네덜란드 연합군이 해적 소탕작업에 착수하여 1860년 해적의 요새가 완전히 제거되었다.

해협 남쪽의 수심은 37m 이하로 대개 약 27m 정도이다. 북서쪽으로 가면서 바닥이 점점 깊어지다가 안다만 해역의 경계가 되는 200m의 등심선(지도에서 바다·호수 등의 수심이 같은 점을 연결한 곡선)에 이른다. 더러는 암초와 모래둔덕으로

둘러싸인 수많은 작은 섬들이 북서쪽으로 48km에 이르기까지 해협 남쪽 입구의 수로를 막으며 펼쳐져 있다. 이 모래둔덕들은 수마트라 섬에서 여러 강을 통해 떠내려온 퇴적물이다.

벨라카(옛 이름은 말라카)와 켈랑 항 사이의 지역에는 높이 15m에 이르는 모래둔덕들이 가로축 방향으로 펼쳐져 있다. 이렇게 과도처럼 굽이치는 많은 모래언덕들은 가파른 북쪽의 경사면을 포함해서 비대칭적인 모양을 이루고 있다. 로칸 강 어귀에서 좀 떨어져서 북쪽에 쌓여 있는 계곡의 잔존구조와 켈랑 항 가까이에 있는 깊이 49m의 웅덩이를 통해 이전에 물길이 지나던 자리를 알아볼 수 있다.

지질학상으로 말라카 해협은 순다 대륙붕에 속한다. 순다 대륙붕은 제4기(약 170만~250만 년 전)초에 형성된 광범위하고 얇은 지표면이 제3기 후기(약 700만 년 전) 이래로 지각변동에 의한 변화없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지형으로 추측된다. 변형되지 않은 상태인 제4기의 단구(段丘)와 1만 년 동안 해협 바닥에 쌓인 이탄층을 통해 지구역사의 최근 단계에서는 지각변동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말라카 해협은 위도가 더 높은 지방의 얼음이 녹으면서 생긴 후빙기의 해수면 상승 때문에 점차 침수되면서 현재의 모양이 되었다. 해협 양쪽에는 해안 늪지들이 많이 있으며 수마트라와 말라야에 있는 몇몇 지역에서는 제3기나 중생대의 암석들로 이루어진 구릉지대를 볼 수 있다.

큰 강 가까이에 쌓인 해안 퇴적물은 말레이 반도 해안의 높이 약 9m 정도에서 수마트라 동쪽 해안의 연간 약 195m에 이르기까지 그 규모가 다양하다. 다양한 암석과 주기에 따라 변화가 많은 강물의 흐름과 연안해류로 극히 복잡한 층적층이 형성되어 있다.

수심이 얇은 바다는 산소로 과포화상태이다. 황천광(침전물에서의 환원작용을 보여주는 철 황화물)과 해록석(海綠石 : 초록색의 작은 돌 같은 금속)이 조그만 생물 유해(遺骸)의 공동(空洞) 안에서 흔히 발견된다. 유기물질의 부패는 이런 미세한 환원작용에서 비롯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기후는 덥고 습하며 북반구를 기준으로 해서 겨울에는 북동계절풍이 불고 여름에는 남서계절풍이 부는 것이 특징이다. 옛날부터 배를 타는 사람들은 계절에 따라 다르게 부는 이 바람의 풍향을 이용해서 항해계획을 세웠다. 연평균강우량은 1,941~2,275mm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북동계절풍과 남서계절풍이 부는 동안 풍속은 평균시속 8~18km에 이른다. 1년 내내 해류는 시속 2.7km로 북서쪽으로 흐르다가 남서계절풍이 불기 시작하는 때에는 남쪽으로 방향을 바꿔 흐른다. 앞서 나온 모래언덕들이 가로축 방향으로 불규칙하게 뻗어 있는 모양과, 말레이 반도 해안에 있는 수많은 강어귀들이 북쪽으로 빗나간 형태를 보면 해류가 정북쪽으로 흐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해협 대부분의 지역에는 하루 2번의 조수가 있다. 밀물의 방향은 남동쪽이고 약간 더 빠른 썰물의 흐름은 초속 53~102cm로 반대방향으로 흘러나간다. 수마트라 섬의 조수간만의 차는 북부에서 약 2.4m, 좁다란 남쪽 지역에서 5.8m 남짓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말레이 반도 해안에서는 평균 2.8m의 조수간만의 차를 보인다.

해면온도는 동쪽이 30.5~31℃로 서쪽보다 2.2℃ 정도 더 높다. 연간 온도변화가 적어 2.2℃를 넘지 않는다. 해협 바닥의 온도는 피낭 섬(옛 페낭 섬) 남쪽 지역이 대략 28℃이다. 북쪽으로 가면서 온도는 점점 내려가 안다만 해분의 해면에서는 12℃가 된다. 육지에 가깝고 큰 강들이 있어서 염도는 낮은 편이다.

순다 대륙붕 지역 바로 앞 수마트라 섬 동쪽 해안에는 유정(油井)들이 있어서 석유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을 갖고 투자에 나선 회사가 많다.

말라카 해협은 여러 형태의 선박들이 다니는 수로로서의 역할 외에도 중동의 유전과 동아시아의 여러 항구 사이를 항해하는 거대한 유조선들의 통로이기도 하다.

교통량이 늘어나면서 일본을 비롯한 여러 인접 국가들이 해도(海圖)에 이 수로를 더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다.

일상에서 부딪히는 법률 상의 궁금증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쉽고 자세하게 풀어보자

차용증(Surat Perjanjian Hutang Pihutang)과 현금보관증(Surat Penitipan Uang)

Q1. 저는 Jakarta에서 10년째 거주하는 홍 길동입니다. 1년전 Sukabumi에 살고있는 고등학교 동창에게 10억 루피아를 빌려주었는데 약속한 1년이 지났어도 아직 상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용증을 한글로 작성하였으며 단지 차용일과 각자의 이름만 기재후 서명을 하였습니다.

A :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 정서는 아직도 서로 신뢰하고 도와주는 마음이 우선하여 간단하게 한글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려주고 있지만 간혹 차용인(채무자)의 의도가 대여인(채권자)의 의도처럼 순수하지 못하여 향후 차용인이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결국 법적 분쟁으로 번지고 증거 불충분과 법률위반(Tip2 참조) 패소하여 손해는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한국인들끼리 돈을 거래할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향후 법적 분쟁이 발생시 법적효과 및 입증 용이 순)

1. 가까운 Notaris 사무실에서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Akta Otentik)이며,
 2. 차선책으로는 양자가 우선 인도네시아어로 차용증을 작성후 단지 서명만 가까운 Notaris사무실에 가서 Notaris앞에서 서명하는 방법(Legalisasi)이며,
 3. 양자가 작성한 차용증을 Notaris 사무실에게서 등록하는 방법(Waarmedking)
 4. 상기 3가지 방법이 여의치 않은 경우 하기에 첨부한 표준 차용증 양식(Tips 1참조 : 인터넷에서 옮겨와 약간 수정함)대로 세밀하게 작성후 가운데 부착한 수입인지위에 양자가 서명을 하는 방법(Akta Dibawah Tangan).
- 참고로 2명 이상의 증인은 반드시 정상인인 성인(21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서로 신뢰 분위기라 적당히 한글로 작성하여 보관하다가 나중에는 상환분쟁이 발생하여 법정까지 갔지만 증거 불충분과 입증부족으로 결국 선량한 대여인은 손해를 입게되고 양자 사이는 결국 원수관계로 변하기 보다는 처음부터 철저하게 거주국인 인도네시아법을 준수하여 상세하게 차용증을 작성후 돈 거래를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차용인도 차용증의 완벽한 법적효과를 인지하여 성실의 의무를 다하기 때문입니다.

Q2. 저는 상기 4번의 표준양식처럼 상세히 기재된 차용증에 의거하여 4개월전 고향 친구에게 5억 루피아를 빌려주었는데 약속한 날자가 1개월이 지났어도 아직까지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일 피일 미루기만 하는 제 친구를 형사 고소할수 있나요?

A : 차용증의 법적 근거는 인도네시아 민법에서 대표적으로 제 1313조, 1320조, 1338조, 1329조 1330조에 근거합니다. 금전의 차용 관계는 민사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만 귀하께서 채무자가 차용시 차용의 원인을 기망하여 (예를 들어서 직원들 급여자금이 부족하여 3개월만 빌린다고 하고서 실제로 차용금을 타 용도의 투자자금으로 전용한다든지) 돈을 빌렸음을 입증 가능시 제한적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통상 현지인들은 차용인에 대한 신뢰의 정도가 높을 경우 차용증(Surat Perjanjian Hutang Pihutang)보다는 기한을 정하여 현금 보관증(Surat Penitipan Uang)을 작성하는 방식을 택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현금 보관증의 방법을 빌려서 금전을 대여시 정해진 기간 이후에 약정된 보관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횡령죄(Pasal 372 KUHP)로 형사 소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Tips 1(차용증 견본) :

SURAT PERJANJIAN HUTANG PIHUTANG

Pada hari ini Senin tanggal Satu bulan Agustus tahun Dua Ribu Lima Belas kami yang bertanda tangan di bawah ini:

1. Nama : Lee Sa Gi
Umur : 50 Tahun
Pekerjaan : Karyawan PT. Suka Pinjam
Alamat : Jl. Suka Hutang No.22 Sukabumi, Jawa Barat

Bertindak untuk dan atas nama diri sendiri dan untuk selanjutnya disebut PIHAK PERTAMA.

2. Nama : Hong Gil Dong
Umur : 50 Tahun
Pekerjaan : Wiraswasta
Alamat : Jl. Angin Kencang No. 13 Kelapa Gading, Jakarta Utara

Bertindak untuk dan atas nama diri sendiri dan untuk selanjutnya disebut PIHAK KEDUA.

a. Dengan ini menyatakan, bahwa PIHAK PERTAMA telah dengan sah dan benar mempunyai utang uang karena pinjaman kepada PIHAK KEDUA, sebesar Rp. 1.000.000.000,- (Satu Milyar Rupiah).

b. PIHAK PERTAMA mengakui telah menerima jumlah uang tersebut secara lengkap dari PIHAK KEDUA sebelum penandatanganan Surat Perjanjian ini, sehingga Surat Perjanjian ini diakui oleh kedua belah pihak dan berlaku sebagai tanda penerimaan yang sah.

c. PIHAK KEDUA dengan ini menyatakan telah menerima pengakuan berhutang dari PIHAK PERTAMA tersebut di atas.

d. Kedua belah pihak telah bersepakat untuk mengadakan serta mengikatkan diri terhadap syarat-syarat serta ketentuan-ketentuan dalam perjanjian ini yang diatur dalam 8 (delapan) pasal sebagai berikut :

Pasal 1
PEMBAYARAN
Pasal 2
BUNGA
Pasal 3
PELANGGARAN
Pasal 4
HAL-HAL YANG TIDAK DIINGINKAN
Pasal 5
BIAYA PENAGIHAN
Pasal 6
BIAYA-BIAYA LAINNYA
Pasal 7
PENYELESAIAN PERSELISIHAN
Pasal 8
PENUTUP

Surat perjanjian ini dibuat di atas kertas bermaterai secukupnya yang ditandatangani dan dibuat rangkap dua berkekuatan hukum yang sama serta masing-masing dipegang oleh PIHAK PERTAMA dan PIHAK KEDUA.

Dibuat di : Kelapa Gading, Jakarta Utara
Pada Tanggal 1 Agustus 2015

PIHAK KEDUA	Materai Rp.6.000,-	PIHAK PERTAMA
(Hong Gil Dong)		(Lee Sa Gi)

Saksi:
1. Yusuf M.
2. A.Winan
3. Asmali T.

Tips 2 :

UU No.24 Tahun 2009 Tentang Bendera, Bahasa dan Lambang Negara serta Lagu Kebangsaan (KUKG) (국기, 국어, 국장 및 국가에 관한 법률)

Indonesia에서 모든 문서 작성시에는 반드시 인도네시아어로 먼저 작성하고 한글 또는 영어로 추가해야 합니다. 갈수록 대법원 판결이 인도네시아어로 작성되지 않은 민간의 계약서까지 법률에 의한 무효 판결이 나오고 있어서 그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선량한 당사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반드시 인도네시아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한인회 홈페이지 <innekorean.or.id> 에서 차용증 견본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작성 : 김 중성 (대표 Partner)
법무법인 인도양 (Indoyang & Partners)
cskim@indoyanglaw.com

핑거루트

*Boesenbergia
pandurata*



핑거루트는 말그대로 사람의 손가락과 비슷하게 생긴 생강과 뿌리작물이다. 학명은 'Boesenbergia rotunda (L.) Mansf.' 로 표기하고 있다. 중국 운남성 남쪽 부터 태국 및 인도네시아 열대와 아열대 지역의 열대우림 지역에서 자생하며 중국 생강(Chinese Ginger)으로도 불리며 인도네시아에서는 '트무꾼찌(Temu kunci)' 로 불린다. 우리에게 익숙한 강황과 비슷한 성분이 들어있으며 마찬가지로 매운맛과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카레의 재료 혹은 향신료나 요리재료로 주로 활용되어 왔다.

최근 국내 연구진이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NDSL)에서 제공하는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2013년 42권1호)에 '핑거루트 추출물의 고지방 식이를 섭취한 마우스의 내장 지방 축적에 대한 효능' 을 통해 핑거루트에서 추출한 밝은 황갈색의 분말인 판두라틴(Panduratin) 성분이 체지방 분해에 대해서 동물실험과 임상시험을 거쳐 그 효능이 입증되었음을 발표했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13년 체지방 감소 및 자외선으로부터의 피부 보호에 대한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로 인정되었고 생리활성기능 2 등급을 받았다.

<핑거루트 효능>

지방분해 효과 핑거루트 추출물인 판두라틴에는 에너지 세포의 에너지가 부족하면 활성이 증가돼 관련 효소들을 조절하여 대사와 지방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AMPK 효소를 활성화 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이는 생성된 지방의 분해를 촉진하고 지방 형성은 감소시키며 지방 조직을 작게 만드는 효과를 보여준다.

피부보호 효과 핑거루트는 자외선으로부터 피부손상을 보호하고 피부주름 및 탄력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핑거루트가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 보통 지방분해등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성분들은 '지방분해 효과' 하나만을 가지고 있지만 핑거루트는 이 둘 동시에 아우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도네시아에서는 여자들이 자외선이 강한 열대 우림 기후에도 탄력있고 건강한 피부를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핑거루트 효능 덕분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핑거루트르 끓인 물로 세수를 해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

당뇨, 항암 효과 앞서 기술한 AMPK는 세포 및 조직 구조의 유지에 필수적인데 당뇨병, 비만 등 여러 대사질환의 치료제 개발 표적 유전자로 큰 주목을 받아 왔다. 핑거루트 추출물인 판두라틴이 AMPK 효소를 활성화 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핑거루트 효능이 이러한 부분에 직접적인 의학적 효과는 보다 명확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한국에 유통되고 있는 핑거루트는 대부분 말린 형태나 분말가루 형태로 수입되고 있으며 대부분 인도네시아산이다.



<핑거루트 먹는 방법>은 핑거루트 추출물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을 복용하거나 핑거루트 가루나 말린 것을 가지고 핑거루트차를 끓여서 마신다. 4-1 핑거루트 차 끓이는 법 준비물 : 핑거루트 말린것 10~15g(혹은 핑거루트 가루), 물 1~1.5 리터 깨끗하게 세척한 핑거루트에 물을 넣고 물이 2/3 정도 될 때 까지 끓여서 마신다. 맛은 생강차와 비슷하며 상대적으로 덜 맵다. 기호에 따라 꿀을 첨가해도 된다.



한국 최초 올림픽 출전

태극기를 휘날리며 받은 역도 동메달, 한국 출전 올림픽

1948년 7월 29일, 태극기를 앞세워 ‘코리아’ 라는 이름으로 제14회 런던 올림픽에 첫 출전.

정항범을 단장으로 육상·역도·복싱·레슬링·사이클·축구·남자농구에 52명의 선수가 출전.

역도 미들급 김성집, 올림픽 사상 첫 동메달로 올림픽 무대에서 태극기를 휘날리게 함.

세계에서 명성 얻던 멕시코와 첫 축구경기,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5대 3으로 한국이 승리.

한국이 올림픽에 최초로 출전한 것은 1948년 7월 29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되었던 제 14회 대회였다. 런던 올림픽은 제2차 세계대전 발발로 인해 12년 만에 치러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감격적이었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였다. 세계인의 대제전에 몇몇하게 제 나라의 이름과 국기를 앞세우고 출전한 적이 한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손기정이 베를린 올림픽에 출전하여 마라톤에서 우승을 했으나, 공식 기록에 국적이 일본으로 기재되었던 가슴 아픈 기억을 지니고 있는 한국인들로서는 런던 올림픽은 참으로 감격적인 것이었다.

선수단이 떠나기 전 제헌국회에서 특별히 출전 선수들에게 보내는 격려 메시지를 채택했다든가, 서울 시민들이 덕수궁에서 환송대회를 열어주었던 것 등은 모두 그 감격과 관심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1948년 7월 29일이라면 아직 미군정하에 있을 때였다. 그러나 태극기를 앞세우고 코리아라는 주권국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참가한 것이었다.



미들급에 출전했던 김성집은 동메달을 획득했다. 이는 올림픽 사상 첫번째 메달이었다.
출처: 1975년 8월 5일 동아일보

한국 선수단은 모두 67명. 정항범(鄭恒範)을 단장으로 육상·역도·복싱·레슬링·사이클·축구·남자농구에 52명의 선수가 출전했다.

최초 올림픽 출전에서 한국은 최윤칠·홍중오·서윤복이 출전한 마라톤 이외에는 참가에 의의를 들 수밖에 없었다. 우선 기량이 떨어졌고, 경험이 전무한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마라톤만은 그렇지 않아서 기대를 걸어볼 만했다.

그러나 뚜껑을 열고 보니 선수들은 의외로 선전했다. 특히 역도미들급의 김성집은 두번째날 경기에서 동메달을 차지하여 올림픽 무대에서 태극기를 처음으로 휘날리게 했다. 역도는 한국 선수들에게 자신감을 갖게 했다. 첫날부터 밴텀급의 이규혁과 페더급의 남수일이 각각 4위를 차지하던니 김성집이 동메달을 딴 것이었다. 이때 획득한 동메달은 올림픽 사상 최초의 메달이 된 셈이다.

메달은 이어서 복싱에서도 나왔다. 3명이 출전한 복싱은 플라이급의 한수안이 승승장구하던니 이탈리아의 왼손잡이 반디넬리와 준결승전을 갖게 되었다. 이때 한수안은 양쪽 고막을 다친 상태였다. 그래서 그랬을까. 그는 하오 5시인 경기 시간을 8시로 잘못 듣고 계속 잠만 자고 있다가 경

기 시작 직전에 부리나케 출전해 관정패를 당하고 말았다. 그러나 패자전에서 분투하여 동메달을 안겨준 것이다. 이 대회에서 한국 선수단은 신생 독립국으로서 다시 한번 국위를 떨치는 쾌거를 올렸다.

축구는 대이변이었다. 첫 번째 경기를 멕시코와 갖게 되었는데, 현지 신문들은 한국팀을 아주 약체로 취급했다. 당시만 해도 코리아라는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신문기자들이 수두룩했다. 그러나 멕시코는 이미 세계 무대에서 명성을 얻고 있던 팀이었다. 현지의 어떤 신문 스포츠란에는 한국이 멕시코를 이긴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고 있었다고 한다. 대체로 런던에서는 멕시코와 한국의 경기를 8대 2 정도로 점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한국팀을 너무 얕잡아본 처사였다. 한국팀에는 손기정처럼 베를린 올림픽 때 일본선수로 뛰었던 선수들이 있었다. 김영식·민병대·홍택영·이유형 등이 바로 그들이었다. 축구라면 일본에까지 그 이름이 알려져 있던 명선수들이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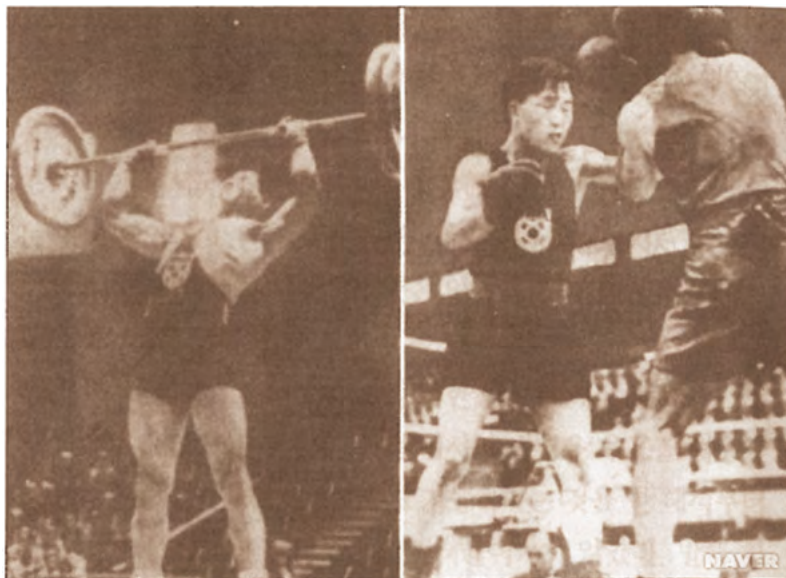
아니나 다를까, 멕시코와 한국의 축구경기는 초반부터 불꽃이 튀기는 듯한 열전이었다. 그리고 전반전이 끝났을 때 한국은 2대 1로 멕시코를 앞서고 있었다. 이어서 후반전도 3대 2로 이겼다. 5대 3으로 승리한 것이다. 그러나 두 번째 경기에서는 강호 스웨덴을 맞아 12대 0으로 패했다.

기대했던 마라톤은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최윤철은 선두를 지키다가 다리에 경련이 일어나는 바람에 중도 포기해야 했고, 다른 선수들도 완주하는 했으나 모두 2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한국은 총 13.75점을 받아 59개 참가국 중 24위를 차지했다. 이는 동양에서는 금메달 한 개가 있는 인도 다음으로 좋은 성적이었다.

첫 올림픽 출전을 결정했을 때 가장 큰 애로점으로 등장한 것은 경비 조달이었다. 정부에서는 올림픽 후원권을 판매하여 경비의 대부분을 충당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처음으로 올림픽에 출전하여 선전하는 한국 선수들왼쪽은 김성집, 오른쪽은 한수안.

[안인의 외비 납부 안내]

개인회비는 가구당 매년 Rp. 30만 로

각 기업, 단체, 협의회, 동호회, 동창회 등의 모임에서
한인회원 모두의 의무인 회비납부를 통해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재원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장 양영연 배상

<보내실 곳>

	BANK WOORI SAUDARA INDONESIA	BANK KEB HANA INDONESIA	
계좌번호 (루피아)	Rp. A/C NO: 100-913-000-538	Rp. A/C NO: 220-200-5949	Rp. A/C NO: 001-001-100-2049
예금주	ASOSIASI KOREA	YAYASAN ASOSIASI KOREA	

회원증 발급

회원이 되신 분(기 납부하신 분 포함)께 회원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구비서류: 여권 혹은 키타스 사본, 사진1매(크기에 상관 없음)

2016년 7월 안인의 법인 및 임원 잔조금 납부 명단

2016년 7월 1일-7월 30일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납입 연도	금 액	
					USD	IDR
1	한인회 법인회원	Achmad Baiquni	BANK NEGARA INDONESIA	2016		135,000,000
104	한인회 이사	안 선 근	U I N UNIVERSITY	2016	1,000	
105	한인회 이사	이 정 휴	GEE SAN INDONESIA	2016		13,200,000
106	한인회 이사	임 진 섭	ALIMINDO SEJATI	2016	1,000	
107	한인회 이사	박 기 현	KOREAN AIR	2016		13,200,000
108	한인회 이사	김 태 화	EEN STEEL INDONESIA	2016	1,000	
108	한인회 자문위원	김 문 환	KASINDO GLOBAL UTAMA			13,200,000
총 금액					\$3,000	Rp174,600,000

2016년 7월 안인의 개인외비 및 불우이웃돕기성금 납부 명단

2016년 7월 1일 기준(접수순)

번호	성 명	납입연도	금 액(IDR)
129	배 연 자	2016	300,000



한인회 한*인니문화연구원 (www.ikcs.kr)

298회 문화탐방 국립갤러리 - 이슬람 사원 외

일시: 2016년 8월 6일 (토) 10:00-13:00

집결: 국립갤러리-대통령궁 소장 명화 전시회장 앞에서

Jl. Medan Merdeka Timur No.14 RT.6/RW.1 Gambir, Jakarta.

연락처: 021-3813021 신청: (SMS/KT) 최우호 팀장 081290478845 0816-190-9976

<http://band.us/n/a5aaraM1AfLeg>

회비: 20만루피아(비회원 25만) (점심, 기부금 포함)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2967	2555
영사과	2967	2580
주아세안대한국대표부	2967	2570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29921900,29922100-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한국산업인력공단	527	2612
자카르타한국문화원	2903	5650
한국관광공사자카르타지사	5785-3030	
한인니문화연구원	0816	1909 976
중소기업진흥공단	5292	1302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081511708882		
국악사랑단체	0811	90 2003	
즈빠라한인회	0291	598593	
(총무 조영성	0813	90323355)	

한인회 비상연락전화 0812 1960 308

•한인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739	9025
벼룩시장	0815	1071 0023
한울	452	5655
여명	9955	5859

•교육기관

한국국제 학교 (JIKS)	844	4958-61
간디국제 학교	690	9902
뉴질랜드국제 학교 (NZIS)	7884	1226
싱가폴국제 학교 (SIS)	7591	4414
(글라빠가딩)	460	8888
영국국제 학교 (BIS)	745	1670

자카르타국제 학교 (JIS)	750	3640
북국제 학교 (NJIS)	453	1001
호주국제 학교 (AIS)	782	1141
일본학교 (JJS)	745	4130
네덜란드국제 학교(NIS)	782	3929
독일국제 학교(DIS)	537	8080
TAIPEI 국제 학교(JITS)	452	3273
SPH (땅그랑)	546	0234
(찌까랑)	897	2786
RICS	7590	3342
헤리티지인터네셔널(HIS)	0812971	2306
LYCEE Int. FRANCAIS	750	3062
JIPS	3004	2885
JIMS	744	4860
PAKISTANEMBASSYSCHOOL	3904137	
ACG 국제 학교	780	5636
ICSCE	780	7313
익투스크리스천국제 학교	7590	8820/50

•유치원

KIDS Island	765	6588
Bambino (위자야)	720	3356
(빠뜨라 꾸닝안)	8378	3783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하나	844	5283
리틀램스쿨(자카르타)	750	0739
(글라빠가딩)	471	8047
(땅그랑)	558	7227

•골프장

BOGOR RAYA	0251	827 1888
CENKARENG	5591	1111
CILANGKAP	8459	5687
CIKAMPEK	0264	317 007
DAMAI INDAH [BSD]	537	0290
EMERALDA	875	9019



마타아리 여행사

소장 정연승

T. 521 2212 H. 081 888 5353
E. yunisarah@naver.com



terior

Creative Human Space

사무공간
주거공간
상업공간

Darmawangsa Square Citywalk 3rd Floor Unit 62-63
Jl. Darmawangsa VI & XI, Jakarta Selatan 12160
Tel : 021-7278-0704 Fax : 021-7278-8330

가 가 한식왕
KANA 가나 RESTOLOUNGE



1. 복요리전문
2. 직수입한 삼합
3. 비즈니스컨셉 (삼계탕)
4. 돌잔치, 모임, 케이터링행사 대환영

Landmark Bld. Ground Floor
 Jl. Jend. Sudirman Kav. 1 Jakarta
 Phone : 2520077, 5710909
 HP : 0811 918 132

강남렌트카



0811-9409-632
 0812-1097-631

▶▶▶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GADING RAYA	546	7668
GUNUNG GEULIS	0251)825	7500
HALIM 1	800	5762
HALIM 2	809	0729
IMPERIAL	546	0120
JABABEKA	893	6148
JAGORAWI	875	3810
KAPUK	588	2388
KARAWANG	0267)405	888
KEDATON	5930	0000
KEMAYORAN	654	1156
KRAKATAU	0254)372	030
LIDO	0251)822	1008
MATOA	787	0864
MODERN	552	9228
PALM HILL	8795	4307
PANGKALAN JATI	751	3326
PERMATA SENTUL	8795	1787
PONDOK CABE	740	5385
PONDOK INDAH	769	4906
RAINBOW HILL	0251)827	2111
RANCAMAYA	0251)824	2282
RAWAMANGUN	475	4732
ROVER SIDE	867	1533
ROYAL JAKARTA	8088	4488
SAWANGAN BARU	740	2194
SEDANA	0267)644	730
SENTUL HIGHLAND	8796	0266
TAKARA	599	1227

●골프교습

Easy Golf	801	2048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392	178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심스골프	570	3063
배준원골프교실	781	7679
PGA골프레슨(까라와찌)	5577	8936
골프투어&골프아카데미	0811	143 437

●골프샵

교민프로골프샵	5577	1006
따만사리골프샵	546	0838
레네세계골프	739	8312
한양(골라빠가딩)	450	4364
EFC Golf	725	0057
혼마플레이골프	344	2540
MFS골프	725	0057
Play Golf	722	9587
월드	552	7434
Bridgestone Golf	7279	8123
Love Green Halim	8778	2771~2
Love Green Cikarang	8990	7881

동문회

●중/고교

강경상고(민병무)	0818	879 149
경기고(구본찬)	780	0204
경남공고(이봉규)	0812	902 3800
경남중고(정낙현)	0813	8293 8557
경동고(강성원)	0812	8830 8566
경북고(노경인)	0815	1901 0575
경북고(이병수)	0816	181 3615
경성고(박영권)	0813	8805 1296
경신고(김진태)	7883	6372
경주중고(김홍규)	0818	141 635
구미 전자공고(이원규)	0815	1428 9329
계성고(최상록)	0811	249 038
광주고(선홍규)	0813	1536 5223
광주 사레시오중고	548	5112
광주 서중일고(이용하)	527	0150
광주 금호고	0815	1903 5802
남성중고(임석균)	515	9277
대구고(김현철)	0818	718 535
대구대륜고(노태진)	0816	835 185
대구 상고(김진우)	825	0581
대구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대광중고(이민규)	0816	880 018
대원외고(권기훈)	0877	7779 4668
대전고(윤내선)	426	2954
덕수상고(정천수)	0816	114 7364
동대문상고(곽기석)	867	3837
동래고(박형남)	0815	1906 0877
동성고(홍창형)	0812	102 2670
동아고(여병철)	0811	187 554
동인고(차명훈)	0815	950 0461
마상고(김만수)	0811	122 5239
목포중고(김용진)	568	0517
배재학당(이성수)	0815	1428 0295
배정고(김상훈)	0817	659 9473
보성고(김유호)	5940	1282
보성교우회(박지배)	0811	976 537
부산기고(채윤규)	026	751 2483
부산 동고(이동훈)	0811	190 7967
부산상고(박갑수)	0812	952 5404
부산 중앙고(송명석)	0811	834 412
부산고(조명국)	0811	1046255
부산 외고(선진세)	0813	8536 8434
서울고(신균)	0811	157 450
서울대신고(서영석)	0813	1139 7145
선린상고(김기석)	0817	648 9321
성남고(성기채)	0815	1070 2424
성동고(구본욱)	025	161 1466
성원고(강변창)	0811	891 458
수원 유신고(안성욱)	0813	1626 7777

순천중고(김정욱)	081519329650
송문고(김영언)	0816 937 269
신일고(금민철)	0816 864 677
심인고(김종필)	0815 1305 4150
안양공고(조한영)	0812 859 8483
양정고(이종환)	0815 1033 1001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등포고(정하승)	0811 140 334
오산고(조동혁)	0815 7432 7769
용산고(박승래)	0813 1842 1269
유한공고(이선용)	0812 071 210
인천중/제물포고(한승도)	0818 912 698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전주고(남택열)	0811 877 108
정석항공고(백승엽)	0811 903 144
중동고(최무종)	0811 8532 0354
중앙고(정재익)	0811 910 013
진주 대아고(김영진)	5522 0041
청주고(조영선)	0815 1901 4477
충남고(이수현)	0811 175 126
한성고(박창화)	0816 780 751
해광고(서동희)	0813 9839 9286
휘문고(맹중호)	0818 973 986

● **대학교**

강원대(송영석)	0812 1326 5977
건국대(조선용)	0811 910 6707
경기대(인기상)	739 7625
경북대(김규식)	0816 182 3748
경희대(양승민)	0811 164 367
계명대(백성영)	871 2371
고려대(이광수)	0813 8026 1353
공군사관후보생(김기정)	08179187100
부경대(이제원)	0812 968 9797
동국대(염정운)	0817 681 8599
동아대(서종근)	0811 850 212
목포해양대(이종재)	08111 975 205
부산대(유제상)	0811 841 510
부산외대(이동훈)	0816 781 564
서강대(이철우)	08121177399
서울대(정무웅)	797 5959
성균관대(김진태)	0818 953 949
숙명여대(서영자)	0815 1324 2799
숭실대(김학수)	0811 879 701
아주대(서보상)	0815 1902 4220
연세대(금민철)	0816 864 677
영남대(김상수)	0812 103 8707
영산대(최재혁)	590 0401
울산대(최재호)	723 0917
이화여대(김미송)	0811 122 0566
인하대(이기홍)	0816 812 507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전남대(최병욱)	0816 188 1233
전북대(최성호)	0815 7232 3689
중앙대(손동근)	0811 844 247
충남대(노제익)	452 6968
충북대(최병인)	0817 778 857
한국외대(신성철)	0818 936 943
한국해양대(이승준)	0811 190 7718
한양대(임영석)	0811 944 338
ROTC(인니치회사무국장한규성)	0818 890 571

● **은행**

수출입은행	525 7261
외환은행	574 1030
우리은행	2996 1915
하나은행	522 0222~3

● **종교 단체**

<기독교>	
꿈이있는교회	548 3044
늘푸른교회	766 9191
동부교회	4587 7317
연합교회	7279 5625
예사랑침례교회	4176 5140
소망교회	739 6487
순복음교회	739 2373
안디옥교회	751 5525
열린교회	844 5537
위자야한인교회	7279 3145
자카르타사랑의교회	450 7324
주님의교회	831 3843
중앙감리교회	533 2749
찌까람임마누엘교회	8990 3133
참빛교회	718 3535
한마음교회	739 5035
한인성요셉성당	7884 3782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돌아봅니다.
고객은 나의 거울이요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한분 한분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가다듬고 精과 誠과 禮를 다해 찾아뵙겠습니다.

고객을 위해 빠르게-



Graha Surveyor Indonesia, 19th Floor Suite 1901
Jl. Jend. Gatot Subroto Kav. 56, Jakarta 12950
Tel. (62-21) 2941-0780 (hunting) | Fax. (62-21) 2941-0775
Mobile: 0811-953607 | www.doowang.net
E-mail: lsw@doowang.co.id | leesowang@gmail.com



Tel: (021) 4587 8833 Fax: (021) 293 64168
HP: 0812 967 8131
E: rodemtours@naver.com
rodem_tours@cbn.net.id



Law Firm
INDOYANG & PARTNERS
법무법인 인도양

강력한 변호사 팀 / 확실한 법적 해결

김 중성 (대표 Partner) : UI대 법대졸, 법대 대학원
 HP : 0815-8690-3000 Email : cskim@indoyanglaw.com 또는 cskim.indoyanglaw@gmail.com
 Korea Center Building, Suite 605 Jl. Jend.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12950, Indonesia Telp : 62-21-5273077 / 8 Fax : 62-21-5207212

Salon & Beauty Shop 7278 6969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법무법인 P.Y.L 527 2422
 P.A.K. 변호사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K LAW 변호사 사무소 5785 3271
 법무법인 인도양 527 3077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밀레니움 7082 0056
 리츠부동산 6896 7249
 대한부동산 0813 1447 6593

●방송사

K-TV 525 2922
 OKTN(KBS World) 797 6151
 KABLE VISION 527 8811
 INDOVISION 581 9988

●병원

관준한의원 722 7745
 뉴월드메디칼 7279 3809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서울메디칼 크리닉 799 1333
 신농서한방병원 7278 0563
 아름다운 병원 720 7628
 향림당 한방병원 720 7727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 (땅그랑) 546 0055
 RS. Siloam (찌까랑) 8990 1911
 Matahari Klinik 722 6391
 Dokter Korea 0815 8539 7777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까시) 821 8705
 무궁화슈퍼 722 2214
 무궁화(땅그랑) 558 2214
 무궁화(골라빠가딩) 453 3624
 무궁화(찌까랑) 7075 2214
 무궁화(다르마왕사) 723 3214
 서울마트(가라와찌) 546 0844
 서울슈퍼(골라빠가딩) 450 4364
 우리슈퍼(버까시)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찌까랑 공소) 8911 7547
 불교>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765 6036
 (동부자바포교원) 0818 333 491
 법연종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이슬람>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가구

쥬지언 퍼니처 766 0364
 아이니갤러리 581 4690

●건강식품/건강원

COCOON(일동제약인니지부) 520 7662
 경동건강원 7028 4262
 고려건강원 081 690 3990
 부아메라 0816 1854 58
 한국건강원 5579 6411
 황소건강원 5576 7628
 진영삼봉나와 8234 565
 솔진생코리아 7278 8287
 클로렐라 470 4280
 이룸황성주생식 5296 1522

●국제전화 서비스

글로벌링 725 1606
 넥스텔링크 525 3187
 데이콤 720 7551
 킹폰 574 0888
 현대 텔레콤 5579 1226
 Hallo Phone 5290 0233

●건설 / 설비 전기

DASOM indonesia 2940 3042/5
 건설 중장비 렌탈 08111 43437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1 846 174
 난 이야기 0812 913 1355
 에셀꽃집 0816 733 810

●기타

바틱하우스 0816 770 143
 마음수련 722 1600
 바람소주 0811 85 3156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Good Deal Gallery 573 6233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골라빠가딩) 9773 4780
 IDOL가라오케(땅그랑) 021 546 0840

●렌트카/기사클럽

강남렌트카 081 2109 7631
 서울렌트카 6870 9335
 우리렌트카 081 119 3069
 한성렌트카 889 0471
 짱구기사클럽 7279 8233
 링크렌트카 9583 1000

●미용실/피부관리

갤러리 J 725 2856
 국제이용원 739 6129
 뷰티 # 520 4428
 스칼렛미용실, 피부관리실 547 5867
 아미란스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퀸덤 7279 2067~8
 Hair Perm 7280 1404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자르헤어 7279 6998

2016년 한인 문예총

<회장단&집행부>

사공경 회장	0816 1909 976
강희중 고문	0816 798 221
이일하 부회장/기획/ 음협 회장	0811 9103 108
신돈철 부회장/전시/ 미협회장	0878 5480 4815
박형동 부회장/공연/ 한바패회장	0811 149 586
이수진 부회장겸 사무국장/ 헤리티지회장	0816 1300 210
채영애 감사/아르떼 여성합창단 단장	0816 745 384
허민경 사무차장/ 스트링 오케스트라 단장	0812 1316 2064
<협력단체장>	
서예협회장 : 양승식	0811 111 363
루시플라워 회장 : 최정순	0811 834 026
미술협회 회장 : 신돈철	0878 5480 4815

문인협회 회장 : 서미숙	0812 8178 050
한바패 회장 : 박형동	0811 149 586
어린이합창단 지휘자 : 안영수	0811 9005 639
색소폰동호회 회장 : 박의태	0811 876 547
헤리티지(코리안) 회장 : 이수진	0816 1300 210
국악사랑 회장 : 장방식	0811 902 003
월화차 회장 : 이춘순	0878 8333 3359
음악협회 회장 : 이일하	0811 9103 108
아버지양상블단장 : 변영극	0815 9101 898
아르떼 여성합창단장 : 채영애	0816 745 384
스트링 오케스트라 단장 : 허민경	0812 1316 2064
<촉탁전문위원>	
* 안선근 : 현지단체교류	0816 883 223
* 최석일 : 문화컨텐츠	0818 901 609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G-마트(찌부부르)	8459 9858
K-마트	2277 5526
위자야마트	726 9049

●식당

하나	0254-393 2146
가나	558 2214
가야성	725 7373
가호	5289 7044
강남	0812 2323 5119
강남스타일	2952 8443
고주몽	7279 6709
고주몽	8984 1000
김군 고기고기	726 4999
김삿갓	722 2230
대가	8459 2871
대감집	720 7530
대화	720 6091
락	5793 9211
마포	7279 2479
맛집칼국수	0821 1096 3483
명가면옥	0254-849 3571
면의전설	521 0230
명가면옥	2751 0800
미가	0818 85 8026
미스터 박	5140 1142
버까시 서울	8895 7604
베다니1호점	9318 0458
베이징	0254-837 0242
보신명가	789 0220
보신명가	0254-848 4111
본가	739 6229
삼원가든	2988 9505
설악추어탕	722 1852

소래포구	8990 5051
씨티서울	5289 7506
아랑22	5140 1245
아리정	739 6549
우장군	725 6181
유미	720 7464
청기와	726 1924
청담가든	0815 7342 5802
청해수산	527 8721
취연	725 1276
토박	725 1135
하누	725 5042
한강	7278 7802
한민족	725 2688
한솔	5290 3417
이가네	6669 5500
한옥	0254-385 588
강산	2452 0569
깜닭	4584 5837
다미	4585 0040
대장금	0816 885 956
마포갈매기	0812 9313 9503
명가면옥	8990 4552
미스터 사시미	4585 3484
미추홀	6583 1472
서울	4585 4454
설악추어탕	2937 5435
송가네삼계탕	4585 4422
야래향	4584 8476
황금밥상	4585 3402
감미옥	5579 4612
강나루	5576 8222
강촌	5579 3681
꼬꼬따리아	0254-39 4255
대가야	547 5511
명가면옥	552 2745
산들	5579 5821

상하이	5573 5550
서울일식	546 0840
아리수	0254-781 0059
알리사	0254-60 1430
오리랑장어랑	5577 6457
우리들	552 4047
조선민물장어	5573 3308
종가레스토랑	551 3273
청기와	0858 1377 3388
체어맨	5577 8585
태능갈비	7055 0888
테라스 가든	8493 9321
한마당	5577 6770

●신문

한국신문 종합대리점	520 7207
데일리코리아	725 7447
조선일보	5290 7388
중앙일보	7590 8308



ICHTHUS SCHOOL
A Christian School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PRIMARY | SECONDARY | A LEVEL



Contact :
 South Campus: Jakarta Selatan
 T: +6221 7590 8820
 West Campus: Jakarta Barat
 T: +6221 581 2228





www.ichthusschool.com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한국일보	769	1081
한인포스트	4586	9199
일요신문	452	5655
타임인도네시아	5028	4996
JAKARTA POST	530	0476
자카르타경제일보	5290	0117

•안경원

눈사랑안경원	723	5360
시티안경원	726	5009

•여행사

나래여행	5296	0749
하나족자트래블	0274	887 488
굿데이투어	4586	0598
그린관광	798	3322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7	8833
마타아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ro	603	9274 1780
솔로몬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폴투어(비자)	2903	6647~50
스카이투어	391	1381
우리투어	794	0422
153 TOUR	5720	153
코리아트래블	230	3116
코인관광	720	7230
하나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532	7970
Inko Batam(바탐)	0778	462 500
사랑투어	3192	4449

•인니어통역/번역

Mrs. Lee	021	743 2687
CITRA		781 7771

•인터넷

HANASTAR INTERNET	2270	8282
S-Net	7080	7886

•인테리어

H2 Stuff	4586	7860
KJ건축 인테리어	0821	2564 1777
		7590 6767
Living A&I	7278	0704
로만인테리어	720	4851
아이니인테리어	0812	1928 5578
INNOMATE	7919	2006

•운송 해운 이삿짐

소명통관	4585	9283
센다이 이주화물	8770	6361
아네카 트란스	520	4181
트란스 우따마	829	6218
프라임 운송 인도네시아	5591	5770
페나스콧 로지스틱스	2902	3838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INDO EXPRESS	5296	0024
PANTOS LOGISTIC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7884	1550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2937	5670
WIKASA	8379	1935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	-----	------

•증권/보험

삼성화재	021	806 22000
우리코린도증권	797	6210
클레몽종합금융	797	6363
메리츠코린도보험	797	6242
키움증권	526	1326
KDB 대우증권	515	1140
LIG 손해보험	391	3101

•컨설팅

럭키비자	0813	1133 2122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누비라컨설팅(리뽀찌까랑)	8990	0088
두왕컨설팅	520	7153

새천년컨설팅	5290	0040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 21	799	6182
퓨릭컨설팅	5596	3213
한생컨설팅	5290	0670
KMAQA (ISO인증원)	573	1576

•컴퓨터, IT

대인정보시스템	230	5533
레드망고(PC방)	4584	4186
리콤컴퓨터	725	1606
컴퓨터 원	5576	5228
지텍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인도웹 www.indoweb.org	0811	8889609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하숙

경복궁하숙(리뽀찌까랑)	0813	14157581
가딩 홈스테이	9661	5877
간다리아게스트하우스	0858	14422900
갈릴리 게스트하우스	0858	13413222
갤러리 게스트하우스	0813	15149978
교민 하숙	0816	163 5558
나인비즈니스 하숙	9940	5005
동지 하숙	3608	9316
리뽀찌까랑 하숙	0812	1066 7757
레저 게스트하우스	0811	143 437
모나리자	8990	9570
모이하숙	0878	8515 1653
사랑채 게스트하우스	0813	8059 1625
세명 하숙	0852	1757 5525
세노파티코리안 하우스	0821	1336 1111
소망 하숙	0813	1724 9911
쉽터 하숙	726	8775
시내중심게스트하우스	0815	17803680
이모네 하숙	0818	964 946
인다 게스트하우스	0822	6074 8228
엘지 게스트하우스	0812	100 7135
엘림 게스트하우스	0815	181 3122
위자야게스트하우스	0815	1024 8888
자카르타 게스트하우스	0817	127 887
풀하우스	0818	901 609
한발	830	9990
한올타리	739	5841
한아름 게스트하우스	723	8302
현대 하숙	0818	795 787
한마음 게스트하우스	0813	8822 7783

BSD등불 하숙 0852 1985 1523
 힐링 게스트하우스 0821 1427 5415

● 학원/교육업

대교인도네시아 5292 0911
 마인드케어학습클리닉 546 4531
 뮤직아카데미 08119103108
 박학천논술 4586 7844
 뿐독인다아카데미 7590 5773
 에세드라아트스쿨(리뽀까라와찌) 546 4531
 예원 720 8783
 케이에듀인 한국어/유학원 2942 7062
 종로학원 7883 5202
 토마토미술 723 3699
 0817 9876 950
 피카소어린이미술학원 081398922222
 하이스트학원 720 2022
 해동검도 522 7204
 해보다외국어학원 0888 843 0415

● 항공

대한항공 (시내) 521 2180
 (공항) 550 23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나 항공 (시내) 572 1381~3
 (공항지점) 5591 3229
 싱가포르 항공 570 4411

● 호텔

그랜드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물리아 574 7777
 상그릴라 570 7440
 싸이드자야 570 4444
 하얏트 390 1234
 크라운플라자 526 8833
 솔탄 573 8011
 GSI Hotel & Resort 0858 8248 3211
 자바 팔레스 2928 1111

● 환전

굿-머니 5793 9990
 그린환전소 0815 1423 0114
 플라빠가징 453 1166
 사강머니체인저 5290 0233
 워너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신암 797 6105
 참피온머니체인저 458 51158
 환전 712 8556

S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20여년간 진주양식 직영을 바탕으로
 최상의품질을 정직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아시아 진주가 되겠습니다.

◆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진주 전 품목 수출 및 도매(한국 배달 가능)
 ◆ 정품 다이아(GIA) 판매 - 90% 환매보장 ◆ 금 매입·매각 가능
 ◆ 모든 셋팅물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가공 가능 ◆ 결혼 예물세트(다이아, 진주)

갤러리(위자아센터 옆) | 본 점(수출/무역)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 HP.0816-873-176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ak-Sel | HP.0816-1390-333
 Tel.021-7278-8327 HP.0888-110-2022 | E-mail. 3spearl@hanmail.net



▶▶▶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재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

최 병우	0811-956-227	회장
강 희중	0816-798-221	검도협회장
곽 봉규	0815-410-4167	탁구협회장
김 송정	0816-716-293	볼링협회장
김 태화	0811-188-2938	스쿼시협회장
방 진학	0811-198-282	태권도협회장
배 응식	0811-965-2775	용무도협회장
이 광희	0811-998-186	축구협회장
정 성원	0817-785-348	테니스협회장
한 현봉	0811-111-5800	골프협회장
이 기홍	0819-812-507	사무총장
성기채	0815-1070-2424	사무차장

발 리 (지역번호 0361)

●한인단체		
재발리한인회		0812 3793 9452
●항공		
대한항공(KAL)		768 377
●종교단체		
한인교회		462 222
●슈퍼마켓		
한국슈퍼마켓		281 929
●여행사		
B.J.C TOUR		284 365
BALI INDA TOUR		286 905
BALI DAMAI TOUR		764 864
BALI HARMONY TOUR(A)		744 1815
BALI STAR TOUR		868 8287
BALI TAP TOUR		860 4977
MANGOCAKE		745 4229
FIN DONGHWA TOUR		847 1966
DREMLAND TOUR		745 1961
DARMA BALI TOUR		848 0030
KOURUS TOUR		744 7200
M. TOUR MAIL		725 800
NUSA TOUR		285 122
ITOUR		261 105
MATAHARI KOREAN TOUR		703 479
MARIN TOUR		224 010
PDTOUR		763 845
PENJOR TOUR		727 800
P.B.B TOUR		288 999
U2 Bali Holiday TOUR		710 731
T.N.B TOUR		808 9000
UNION TOUR		745 4419
SUDINA TOUR		744 2121
SPIRIT TOUR		780 2340
KOREA TRAVER		756 899
V.I.P. 여행사		762 090
WORLD RESORT CENTER		778 218
WEDDING TOUR		745 3650
●식당		
그릴하우스	(0361) 710 374	
꼬끼레스토랑		770 256
대장금(SIMPANG SIUR)		889 0870
대장금(SANUR)		918 1888
라리스		727 405
부가		805 1212
서울가든(부두굴)	(0362) 342 9220	
한일관		727 250
인터넷서날라온지		759 368

●서비스업

- 빌라, 호텔		
BEVERLY HILLS VILLA		848 1800
BALI DIARY HOTEL		499 282
DREAM LAND VILLA		708 199
OCEAN BLUE BALI VILLA		776 700
MAN&WOMAN VILLA		847 6521
LAVENDER HOTEL		752 961
VILLA DOWNTOWN		736 464
VILLA NAMASTE		755 755
AISIS VILLA		862 8777

●기타서비스업

I.N.L		720 999
INKO CLUB		722 431
HALLO BALI		723 593
SIMPANG SIUR		761 313
AVENUE		762 327
AISIS (NUSADUA)		770 256
AISIS (SANUR)		287 257
COLAGEN BUTY SHOP		885 1770
CLUBBER		766 340
BALI FINE		852 8881
POLO SHOP(AIRPORT)		759 368
BALI TEGEHE AGUNG		298 643
CLEAN & GREEN		289 070
SUN JEWELLERY		761 537
SINAR MUTIARA BALI		462 061
BALI DEWATA		285 501
CHIPPENDALE FURNITURE		812 570
SAMMA		815 310
BALI PROPERTY CONSULTING		264 086
SHINY HAIRSHOP		766 304
카리스(특피전문백)	0811 998 1637	

반둥 (지역번호 022)

반둥 아름다운교회		201 3184
		0813 2233 0119
반둥 반석교회		201 5022
한국인교회		201 4052

●식당

뉴캐슬식당		201 5007~8
명가레스토랑		200 7363
코리아하우스		203 1626
한국관		204 3069

●서비스업

뉴캐슬사우나		201 5007~8
반둥렌트카		0858-1111-4000
반둥한인부동산		0858-1111-4000
반둥컴퓨터		0821-2222-6000



긴급전화번호

경찰	POLICE (Polisi)	112
범죄 및 도난 신고		110
소방서 (화재신고)	FIRE BRIGADE (Dinas kebakaran)	113
응급차	AMBULANCE (Ambulan)	118 119
민간구급차 서비스	PRIVATE AMBULANCE SERVICES	(021)7506001 =International SOS (24시간대기)

■전화번호 안내

시내.....	108
Directory Service(City)	
시 외.....	105,100
Directory Service(Suburbs)	
국제전화.....	001,008

■교통기관

수카르노 하타공항안내.....	021)5505307/8/9
Airport Information	550 5179
택시예약(블루버드클럽).....	021)7917 1234
(24시간 접수)	
고속도로 정보.....	801
Toll Road	
교통사고.....	118, 021)527 5090
Traffic Accidents	
열차시간안내.....	121
Station Gambir	
Station Kota.....	021)692 8515

■재인도네시아 한국인관련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021)2967 2555
영사과.....	021)2967 2580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021)521 2515
한인회 24시간 비상연락....	0812 1960 308

■항공사 안내

대한항공(시내).....	021)521 2180
(공항).....	021)550 2389
가루다(Call Center).....	021)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 항공(시내).....	021)5721 381~3
(공항).....	021)5591 3229

■우편

중앙자카르타 우체국.....	021)384 4188
-----------------	--------------

■각종 고장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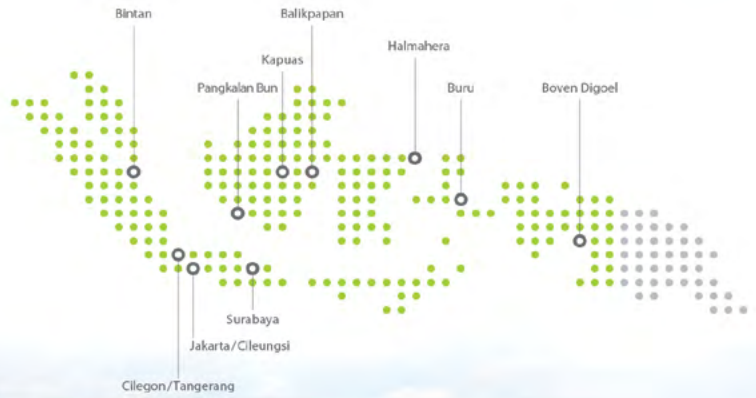
전기고장 문의.....	123
전화고장 문의.....	147
수도고장 문의.....	021)57986555

지역 한인회 주소록

2016년

번호	지역	직위	성명	휴대폰
1	발리	회장	안 복 희	0813-3808-6990
		부회장	편 성 호	0812-389-0694
		부회장	윤 경 희	0811-385-841
		수석 총무	최 경 희	
		총무	송 학 자	0812-362-3000
		총무	손 민 석	0858-5732-0669
2	반둥	회장	엄 정 호	0812-201-8309
		수석 부회장		현재 공석
		사무 국장	남 상 일	0812-2400-0303
3	케프리주 바탐	회장	공 자 영	0811-691-826
		수석 부회장	주 정 만	0812-704-5030
		사무 국장	정 규 철	0812-701-6090
		총무	이 상 구	0821-7356-8405
4	보고르	회장	이 철 훈	0811-112-179
		총무	임 성 필	0819-707-107
5	메단	회장	홍 상 철	0811-160-8724
		총무	손 근 환	0812-655-9418
6	수까부미	회장	김 흥 기	0811-111-5208
		부회장		현재 공석
7	동부자바 (수라바야)	회장	배 춘 식	0811-332-4001
		수석 부회장	이 경 윤	0817-321-833
		사무 총장	김 태 현	0818-321-332
		수석 총무	정 상 원	0812-3373-8798
		총무	박 한 진	0813-5274-8703
		총무	배 기 보	0812-3251-5518
8	중부자바 (스마랑)	회장	김 소 웅	0811-278-8909
		사무 국장	채 환	0822-2021-5725
		사무 총무	이 승 현	0811-978-0282
9	족자카르타	회장	박 병 엽	0821-3352-6380
		총무	조 용 재	0815-4880-0256
10	즈파라	회장	박 상 규	0812-2523-7001
		수석 총무	조 영 성	0813-9032-3355
		총무	양 세 환	0822-2719-9135
11	땅그랑 반뜰	회장	오 세 명	0816-187-8582
		간사	허 미 숙	0818-660-732
12	마카사르 술라웨시	회장	이 재 호	0811-444-190
		총무	한 정 곤	0811-419-200

KORINDO Plants the Green



인류의 지속가능성, 녹색경영에서 해법을 찾다!

코린도의 주력사업인 천연림경영, 조림, 팜오일, 목가공사업 등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친환경사업을 통해 지구와 인류를 위한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 
Forestry Management
- 
Timber Plantation
- 
Oil Palm Plantation
- 
Rubber Plantation
- 
Plywood
- 
Plant
- 
Special Vehicle
- 
Battery Separator
- 
Coal & Limestone Mining
- 
Finance
- 
Total Logistics
- 
Shipping Division
- 
Engineering & Construction
- 
International Business Div.
- 
Real Estate Management
- 
Rest area & Gas station
- 
SG Consulting
- 
Wind Tower
- 
Newsprint & Printing / Writing Paper
- 
Wood Chip/ Veneer/ Sawn Timber/ Wood Pellet



KIDECO,
the most reliable coal supplier
and
friend moving towards
the future together

